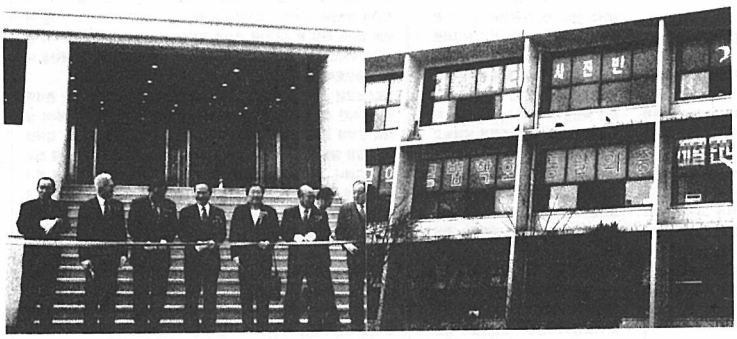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7년 3월 10일(월) 제684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겸 주간 박재우 편집장 김태형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961-4151 FAX 962-7128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용인, 대학당국의 새터 특별기금 긴축으로 갈등 겪어

학생 항의에 다시 지급, 재발 방지돼야



지난 4일(화) 개관된 교수연구동. 학생들의 등록금의 일부는 이 건물안의 안정된 연구 분위기 정착을 위해 쓰여졌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학생회관의 낙후된 시설을 볼 때 과연 돈이 올바른 곳에 바르게 쓰여졌는지… 함철우 기자

지난 4일(화) 용인배움터 18대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들이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 특별기금에 대한 대학당국에의 항의 표시로 학생처 집기를 들어냈다. 집기를 학생회관 밖으로 들어내는 과정에서 학생처 직원들은 학생 대표인 확대운영위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작년까지 지급하던 새터에 대한 특별 기금을 대학당국에서 주기로 합의 했으나 떠나기 이틀 전인 3일(월) 일방적인 통보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학당국에서는 이번 97년도에는 등록금 인상률이 예정돼있던 13%에서 6.95%로 소폭인상했기 때문에 새터 관련 특별기금을 예정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총학생회 중앙집행국장 고희철(인문·언어 4)군은 "대학당국은 비용이 모자르다면 5월대동제 행사비용에서 일부를 끌어다 쓰라고 했으나 대동제 행사비용도 모자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새터 특별 기금을 예정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신입생만 가고 정작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재학생들은 아무도 갈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들이 학생처 집기를 들어내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부총학생회장 김홍철(자연·물리 4)군은 "우리 학교 등록금 인상률은 다른 대학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등록금 인상률이 낮다하더라도 대학당국의 재정은 작년보다 늘어났다. 그런데도 작년 만큼 못 준다는 말은 타당성이 없다"며 "이번 일은 단순히 돈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8·15 연세대 통일투쟁 이후 학생자치권을 탄압하려는 대학당국의 의도가 숨어 있는것 같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예산안을 근거로 새터 특별기금을 지급할 것 △형정권의주의적인 행동 삼가할 것 등을 대학당국에 요구했으나 이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화) 밤 대학당국에서 새터 특별기금을 원래대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이번 일은 일단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정책국장 박민정(동구·체코 4)양은 "이와같은 대학당국의 학생자치권 탄압이 앞으로도 계속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명재권 기자

지면안내

신입생 아닌 신입생 · · · 3면
편입생·재입학생, 그들의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한국경제 파탄의 본질 · · 4면
한국경제가 파탄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

중국에 꿈이 있다 · · · · · · · · · · · · · · · 6면
작년 동·투의 성과로 해외단기연수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데

특별 · · · · · · · · · · 8면
밤바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울산 산천동 철거지구를 찾아

본 시리즈 · · · · · · · 10면
등록금 190만원대, 우리 자화상의 수기

사 령

임

사진부장

한승주(정책·행정4)

사회부장

허윤숙(동양·아랍3)

박병수(인문·사학3)

대학부장

고영진(정책·신방3)

〈3월 10일자〉

빈의자 이문동 몽환기

▲지난 4일(화) 서울배움터에서는 통역대학원과 교수연구동 개관식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학생들이다. 그들이 낸 등록금의 상당부분으로 두개의 건물이 올려졌다는 건 뻔한 이치이건만 정작 당사자가 빠진 개관식이 열린다. 개관식엔 총장, 원장, 여러 보직교수들의 웃음소리와 테잎 자르는 가위소리와 바쁘게 찍어대는 홍보과의 사진소리만 울려댄다. 뭔가 빠져있다.

▲교수연구동의 번들거리는 대리석 계단을 밟는다. 뭔가 어색하다. 매일 밟아오던 학생회관의 계단같은 푸석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리석 바닥에 얼굴이 비친다. 얼굴이 일그러진다.

교수식당의 의자를 본다. 앉아보고 싶지만 그건 마음 뿐이다. 매일 앉아 식사하던 학생식당의 딱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학생식당의 황한 창문과 교수식당의 블루톤의 커튼이 대조를 이룬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어지럽다. 학생회관의 5층 계단이 머리속을 맴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토록 깊었던가. 장애인 특별전형도 없는 학교가. 뭔가 어색하다.

▲다시 1층이다. 2억 7천을 실내장식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재일은행은 온통 금색이다. 왼쪽으로 텅빈 공간이 보인다. 버거킹이, 인터넷 카페가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 공간에 대해 학생회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라고 하고, 대학당국은 '아직 계획 없다'고 한다. 한숨이 나온다.

▲학생회관이다. 다시 현실이다. 최칙한 형광등 불빛, 둔탁한 계단, 좁은 과방과 동아리방. 다시 편안해진다. 다시 익숙해진다. 갑자기 서글퍼진다. 나는 이미 이곳에 길들여진 것이다. 교수연구동과 같은 번쩍임에 담합할 정도로.

교수연구동을 다녀온 것은 분명 현실이었건만, 학생회관으로 들어온 지금 그건 어디까지나 꿈일 뿐이다. 아니다. 이상이다. 꿈은 어디까지나 꿈으로 끝이 나지만, 이상은 실현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회관이 교수연구동처럼 되는 날을 위해 오늘도 투쟁한다. 교수연구동을 짓는 돈의 절반도 학생복지를 위해 쓰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 투쟁한다.

김태형

서울총학, 교수연구동 공간 용도 입장정리

서점과 인터넷 카페를 위한 공간으로

제2교수연구동이 지난 4일(화) 개관식을 가졌다. 1층의 제일은행이 입주하고 남은 200여평의 공간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개관을 한 것이다. 대학당국에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그를 조정중에 있다고 할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간 사용안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측에서는 공간 재배치와 관련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교수연구동의 1층 공간 사용에 대해 학교에 제시할 방안을 결정지었다.

제일 은행이 들어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미네르바의 서점과 현재의 한양대 학생회관에 있는 인터넷 카페를 위한 공간으로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도서관 공간활용에 대해서도 대학당국이 내놓은 서고확장을 반대하고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이에 대해 유경호(상경·경제 2)군은 "과연 우리 학교에서 인터넷 카페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인터넷 카페보다는 현재의 전산실을 이용하고 인터넷 카페의 공간에 우리 학교의 공간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

이동훈 기자

문민독재 퇴진과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빈민학생연대투쟁 열려

지난 7일(금)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민중생존권 압살 부패정권·김영삼정권 타도와 악법철폐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고 민병일 열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그리고 한국대학총학생회(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1000명 정도가 참가해 빈민학생연대투쟁의 기치를 높였다.

민중생존권을 압살하고 있는 문민독재에 대해 남경남 전철연 의장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할 말을 못하는 세상은 짐승 세상과 똑같다"며 "우리 나라를 짐승세상과 똑같이 만든 문민독재를 타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이필두 전노련 의장은 "문민독재타도는 남한 민중 모두가 해야할 일이므로 타도의 선두에 우리 노점상·빈민이 서겠다"라고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한편 작년 8월부터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후꼬꾸의 해고 노동자 이승진씨는 "회사측이 노조간부를 대량해고하고 폭력배를 동원하는 등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회사원들은 회사측의 노조와해 공작을 막아내 노동악법철폐투쟁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진 기자

수습모집광고

크게 크게 뜨세요!

크게 크게 뜨세요!
세상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크게 크게 뜨세요
세상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크게 크게 뜨세요
당신 앞에 '외대학보'가 있습니다.

크게 크게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외대학보가 '성냥개비'가 되겠습니다.

크게 크게 뜨세요
당신 이름앞에 '수습기자' 꼬리가 붙습니다.

모집부문
대학부
사회부
문화부
사진부

모집기간
3월3일(월)
~ 27일(목)

모집방법
논술 및
자기소개서(27일)
면접(28일)

문의
서울 961-4152, 4466
용인 (0335) 30-4112

[illegible]

일시: 3월 12일(수) 6시
장소: 대강당
내용: '97 신입생 환영 행사

1.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가 참가 한 앙케이트 쇼
2. 학교의 이곳 저곳을 Drama화 한 패러디·학교소개
3. 갖가지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랑천 외대인의 상 "외대인 인물전"
4. 베트남어과 노래패 올림쌀(제 17회 FBS 외대 가요제 수상팀)의 축하공연 & 탈반의 한판 놀이

신입생 뿐 아니라 재학생도 환영합니다.

빠른소리 알찬방송 외대교육방송국

사 설

새터문제 재발방지 약속해야

대선을 앞두고 학생자치권 탄압을 통해 진보세력의 움직임을 사전에 저지하려는 정권의 움직임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2월 교육부는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 '학생복지의 확대 및 학생지도 철저'란 항목을 통해 △대학주관하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학생간부 자격기준 강화 △학생회비의 분리징수 및 관리철저 △한총련·지역총련 등 불법·불건전 단체에의 회비납부 금지 △대학언론 매체의 지도 및 관리강화 - 주간교수의 편집권 강화 및 위상 제고 등의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한보사태를 통해 드러났던 김영삼 정권의 '독재정권 이어받기' 사업의 또 다른 모습이다. 마치 89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고안됐던 '학원안정화대책'을 보는 듯 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5일(수) 치러진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국민들의 심판이 끝났고, 사업 또한 참패로 판정됐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학교에서도 학생자치권에 대한 간섭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화) 용인배움터에서는 교육부 지침을 시행하려는 대학당국과 이에 반발하는 학생 사이에 마찰이 발생했다. 새내기새로배움터(새터)와 관련해 대학당국이 이문동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별기금을 삭감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고,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총학생회 학대운영위원들이 학생처 집기를 들어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학생처 직원들의 거친말이 오갔고, 그것으론 부족했던지 "정 비용이 모자리면 5월에 있을 대동제 행사비용을 끌어다 써라"는 상식 밖의 말도 서슴지 않았다.

대학당국의 논리는 이렇다. '97년도 등록금 인상률이 예정되었던 13%에서 6.95%로 소폭 인상됐기 때문에 새터관련 특별기금을 예정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다른 대학(한양대 6.74%, 경희대 6.7%, 연세대 6.5%, 서울여대 6.66%)보다 높은 편이다. 설령 예년에 비해 등록금 인상률이 낮아졌다하더라도 어찌됐든 작년에 비해서는 인상됐기 때문에 대학당국의 재정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작년만큼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은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6.95%만큼의 인상액이 지급돼야 마땅하다.

한편 용인배움터 새터문제는 특별기금 삭감문제 이전부터 마찰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대학당국이 예전처럼 하나의 장소로 새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과대별로 나누어 교수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형식을 주장했던 것이다. 논의 끝에 예전처럼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국 이번에 또다시 특별기금 삭감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항의로 인해 대학당국이 특별기금을 종전대로 지급하는 걸로 일단락 됐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다른 대학에도 새터에 대한 탄압이 (본보 683호 참고) 있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일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당국의 행위는 재정긴축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작년 8·15 연세대 통일무쟁 이후 벌어지고 있는 학생자치권 간섭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 날치기, 한보비리로 인해 수세에 몰린 정권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탈출구로 진보세력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탄압을 시작했고, 그 첨병역할 대학당국이 맡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대학당국은 이번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새터의 단대별 분리계획, 재정지원 삭감을 통해 학생회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 한 점을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다짐 해야 한다.

김영삼 정권이 난국 타개방안으로 진보세력을 탄압했지만 결국 문민독재의 무모함과 폭력성만 드러냈던 것처럼 대학당국과 학생 간의 싸움은 최후에는 진보세력인 학생들의 승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과 같은 뒤늦은 후회는 늦다. 벌써 민심은 현 정권을 떠났다. 대학당국이 현 정권과 같은 오류를 겪지 말고 선견지명으로 일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畜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시다.
원고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이며, 서울·용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하이텔 OEDAE, 나우누리 외대학보)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교수연구동 문제에 관심을

올해는 외대발전 5개년 계획이 새로 시작되는 해이며 총장선출이 있는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신축 교수연구동에 대한 문제는 쉽게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

관심의 대상은 1층의 공간 활용이다. 학교측은 독단적인 결정으로 상업적 시설을 유치하고 그 수익금 또한 학교가 아닌 재단으로 회계처리를 한다고 한다. 재단으로 회계처리가 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이 학생들에게 환원되는지 불확실해지며 재단만이 일방적으로 처리 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등록금의 일부와 기부금으로 지어진 건물이 학생의 참여가 배제된 채 마음대로 주물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본적인 전입금을 확충하지 않는 학교법인이 과연 외대 발전의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교법인이 외대생들에게 수익금을 직접 쓸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학생들의 무관심이다.

우리가 교수연구동문제에 대처하는 원칙은 먼저 우리의 등록금의 일부와 기부금으로 지어진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가 행사되어야 하는 공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공간활용방안에 대해서 학생의 의견이 주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업적 공간의 입주에 대한 계약과정과 계약서를 공개하도록하여 투명한 학교 행정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상업시설의 수익금이 학생들에게 직접 환원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교수연구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정종호 (상경·무역 2)

깨끗한 외대 새내기에게 보여주자

바야흐로 봄의 향기가 온 교정을 가득 메우는 3월이 왔다. 이문동의 전 캠퍼스는 물론이며 정문부터 지하철 역 주변까지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재학생, 복학생들이 새로움과 열정으로 신학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몇 몇 학생들이 97새내기들에게는 물론이며 수많은 학생들에게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은 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난 수요일 밤 9시경에 정문을 빠져나오는 길에, 본관 건물과 도서관 건물로 가는 길 사이에 있는 잔디밭에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맥주병과 종이컵 서너개, 그리고 과자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약 한 시간 전에 그 곳을 지나갈 때, 어느 학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배들과 신입생들로 보이는 약 30여명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마도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인 듯 싶은데, 왜 그들은 그들이 사용했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잔디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지만, 선후배들이 만나서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싱그러운 봄을 만끽할 수도 있어서, 비록 작기는 해도 남만큼 즐거움이 물씬 풍기는 곳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어지럽게 널려놓고 치우지않은 그 자리를 다음날 와서 과연 치우기라도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다음날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며 교정을 정리하시는 아저씨들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것이다.

덧붙여 말가지 더 언급하자면, 3월에 있는 수많은 개강파티와 신구대면식과 같은 행사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복학생을 비롯한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의 첫만남을 기념하면서, 선배들은 새내기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충고와 격려를 해주고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힘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자리이다. 그런데도 이런 중요한 목적과는 달리 단지 즐기며 놀고 마시는 데에만 신경 써서 그릇된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런 행사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신입생들은 선배들에게서 진정으로 얻고자 했던 바를 얻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르며, 심지어는 대학의 좋지 못한 문화만을 배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외대인이라면 교정에서 즐겁게 지낼 권리를 누린 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성실히 수행할 줄 알아야 할 것이며, 학문 연구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내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대학 문화를, 우리의 외대 문화를 온몸으로 느기는 3월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김태균(사회·신방 2)

독자사진

미군의 훈련으로 황폐해진 금수강산

신방과 보도 사진부 김영선

영수담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

21세기를 몇년 앞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과연 인간은 눈을 감기전까지 자신의 운명을 한치라도 내다볼 수 있는가? 우리는 며칠전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대통령이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무부장관을 잘아치우는 정치코메디를 보았다. 고대 그리스 아와 극장 연극경연대회에 이 정치 쇼가 올려졌다면 장원을 하리라.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안목과 덕망이 있어야 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의로외야 하고 자신이 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통치자도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인의 실수는 보통사람의 실수와는 다르다. 비록 모르고 했을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대중에게 솔직한 공약을 하고 당선된 공인들, 예컨대 학생회장이나 총장, 국회의원, 대통령 등은 임기중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회는 서로 주고받는 계약과 신뢰로서만이 진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 이야기는 2,500년전 그리스 비극경연대회에서 인정받은 이래 인류의 보편적 지적 유산으로 세계교양필독서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테베왕국에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하여 오이디푸스왕을 비롯하여 신하, 시민 등 모두가 괴로워한다. 이 알 수 없는 역병은 이 나라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므로 그를 찾아내어 벌해야 한다고 했다. 오이디푸스왕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이런 미스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성역없이 수사하여 벌하겠다고 선언한다. 우여곡절 끝에 그 무서운 역병의 범인이 바로 왕 자신임을 깨닫게 되자 오이디푸스왕은 자신의 무지에 분노하고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두 눈을 후벼 파고 방랑의 길을 떠나는 용단을 내린다. 왕으로써 신하와 시민들 앞에서 한 자기 말을 실천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위대한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소설에서 이 문제를 교묘히 다루고 있다. 즉 체코 공산주의의 실패의 문제에 있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는 모르고 소련이 시키는 것을 믿어왔고, 속임을 당했을 뿐, 마음속 깊은 곳엔 죄가 없다고 변명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법철학 이후 기본적인 문제는 물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가이다. 바보왕이 바보여서 나라가 도탄에 빠졌는데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검찰이 실수로 죄 없는 자를 재판에 회부해서 형을 살게 하거나 사형에 처했다고 하자. 이 때 검찰이 가슴을 치며 자기의 정렬 결백을 주장할 수 있을까? 자동차 운전자가 실수로 행인을 치어 죽이고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고로 인간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상식으로 통하는 법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한 나라의 지도자는 바보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도 없는데 하물며 알면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반드시 사후에 댓가를 치른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오이디푸스 왕의 용기가 절실한 오늘이다.

김규진 교수(체코어과)

난 바꾸기 귀찮은데 국민들이 자꾸 바꾸라니깐 그렇지.

-높은 분-

국회의원들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싫어했겠지...

-모범생-

백지 낙자보

개네들은 말을 안 들어서리...

-금뱃지-

아직 임기가 좀 남았으니 상관없어.

-초선의원-

주제 :국회 노동법 개정 과정 중 전교조의 합법화는 없다는데...

우리는 잘못 없어요.

-전국교장조합-

그럼 부모님 직업란에 교사라고 쓰면 안되네!

-동사무소 직원-

이것도 날치기 해 볼까?

-금03-

도대체 왜 그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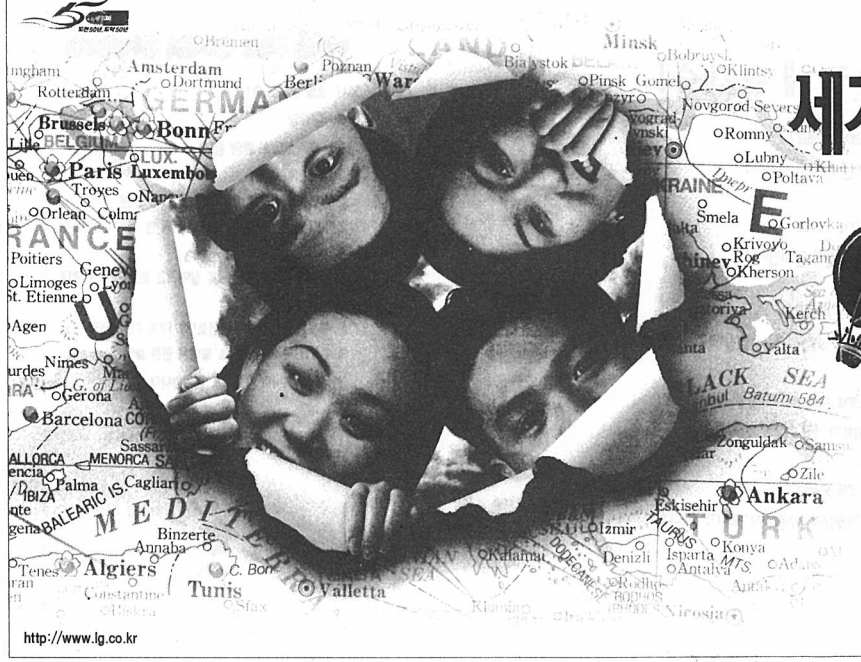
-뉴튼-

선생님 힘 내세요. 선생님 곁에 우리들이 있잖아요

-새내기-

正道경영·초우량LG

'97 LG 21세기 선발대 모집



세계 초우량을 찾아오라!

2005년 세계 최고 기업을 목표로 힘차게 도약하는 LG - 21세기 초우량 한국의 실현을 위해 대학생 여러분을 세계로 보내드립니다. 가슴 가득 세계 초우량을 담아오십시오. LG가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97 LG 21세기 선발대, 50팀 200명을 모집합니다.

1. 응모분야
•자연과학분야 •사회분야 •문화·교육·예술분야 •경제·기업분야
※ 팀원대상 : 해당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 및 능력을 갖고 있는 각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대학, 기업, 사회단체 등

2. 응모테마
응모분야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팀업·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LG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세계 초우량 수준의 개선 정책안을 제시할 수 있는 테마

3. 응모자격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팀업활동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학생

4. 응모팀 구성
4명(동일학교 학생으로 구성, 전공 제한 없음)

5. 선발인원
200명(50팀×4명/1팀)

6. 팀업기간
2주일간(13박 14일)
※ 시기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7. 팀업팀 지원내역
•항공료·숙박비 전액 •소정의 연구활동비

8. 제출서류
•참가지원서(소정양식)
•팀업계획서 : 팀업분야·목적, 팀업일정·지역·대상, 팀업활동계획
•학점 추천서
•지도교수 팀업계획 지도 확인서
•계획응용서
※ 참가지원서는 각 대학(교) 학생처(과) 및 (LG 21세기 선발대) 사무국에서 교부함(복사 사용도 가능)
※ 1지원서 통과자 제출서류 : 예선내역서

9. 응모기간
1997년 4월 14일부터 1997년 4월 17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 접수처
•방문접수 :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대강당 앞
•우편접수 : 121-7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75번지 LG이포빌딩(2층) (LG 21세기 선발대) 사무국

11. 선발방법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심사
※ 심사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12. 선발일자 발표
1997년 5월 20일자 스포츠일간지를 통한 발표 및 개별 통지

13. 팀업팀 의무사항
•팀업보고서 제출(팀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자금 자료, 간행물, 사진 등 포함
•LG 21세기 선발대 행동규범 준수

14. 우수 팀업팀 시상
•팀업보고서 심사를 통해 우수 팀업팀 선발, 시상
- 대 상 : 1팀(부상 500만원)
- 최우수상 : 부문별 1팀 총 4개팀(부상 각 300만원)
- 우 수 상 : 부문별 1팀 총 4개팀(부상 각 200만원)
- 장 려 상 : 부문별 1팀 총 4개팀
(부상 각 100만원 상당의 상품)

15. 기타
•LG그룹 홈페이지(http://www.lg.co.kr)나 천리안(GO LG)에서 참가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응모된 팀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LG 21세기 선발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람(Tel : 705-3166/3167, Fax : 701-1507)

LG

http://www.lg.co.kr

편 입학과 재입학의 행정적 문제점

학사행정에 떠밀려 난 학생들

편입 · 재입학에 행정 편의주의 만연

새학기다. 매년 이맘때면 양 배움터는 새내기를 제외하고도 편입생, 재입학생 등 새 얼굴을 맞게 된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한 학생 모두가 갖가지 행정상의 문제로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

편입학에 관한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편입생들이 우리학교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편입생 자신이 주위를 겉도는 등의 문제 뿐 아니라 학업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학사 편입을 보면, '교무처 처무 시행세칙'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는 3학년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타대학 약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우리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경영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데도 기초도 없이 3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며 이를 보완할 어떤 프로그램도 없다는 데 있다. 이 영향이 학과수업 분위기 전체로 번지게 되면 재학생 · 편입생 간의 골은 깊어진다. 이에 대해 대학당국은 "학생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따라갈 부분"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둘째로, 정원 외 학사편입생의 명단이 공고되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수익 때문에 편입생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학칙에 따르면 학사편입인원은 3학년 전체정원의 5%이내, 해당학과 정원의 10%이내 이므로 각 배움터에 3학년 인원이 1700명 씩이라고 가정하면 85명(양 배움터 170명)까지는 학사편입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입학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전공고 부재(강의 시간표에만 게재) △접수누락인원 추가모집 부재 △재입학금 운용내역 불투명 △편입학보다 늦은 재입학 모집시기로 인한 피해 가능성 등이다.

특히 마지막 사항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재입학 및 편입(학사편입 제외)은 과에 결원이 생겼을 때만 가능한데 편입학 전형일정이 재입학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원이 있어도 재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당국에서는 "편입생 모집시 한 두명 정도의 빈자리를 남겨둔다."고 말하지만 재입학 희망자가 한 두명을 넘었을 때 역시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96년도에 제적된 후 대학당국의 공고부재로 재입학하지 못한 손애련(사범 · 독교 93학번)학생을 만나 재입학과 관련한 문제점을 들어본다.

어떻게 하다 재입학하지 못했나?

작년에 학사제적이 돼 이번학기에 재입학하려고 지난달 18일에(접수는 17일까지 했다) 학적과에 갔더니 접수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학적주임에게 말을 했는데 '아무때나 받는게 아니다'며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했다. 추가모집과 2학기 재입학에 대한 질문에도 '없다', '모르겠다'는 식의 성의없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늦게 간 이유는?

대강 그때쯤이라는 건 알았지만 학교에서 공고가 안났다. 학적과 직원은 강의 시간표에 학사일정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본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대학당국의 입장은?

내가 재입학 못한 것은 '네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으니 네 책임이다'라며 나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추가모집에 대해서도 '휴 · 복학과 달리 재입학은 재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모집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대학당국의 태도에 대한 생각은?

그 사람들은 일처리의 능률성을 고려해야하고 결재과정이 복잡해 추가모집을 못한다고 한다. 학교가 학사일정을 정하면 학생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이다. 한 마디로 학생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된다. 더군다나 이번 일은 공고를 안 한 대학의 잘못도 있지 않는가.

학생회측에서의 대응은?

18일과 24일에 내가 연락을 했고 부총학생회장이 학적과장도 만났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전에 학적과 찾아가서 했던 것 이상의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 총학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나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

김보영 기자

주차장에서의 입학식

97년도 새내기 입학식은 20여분만에 학교 주차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렇다할 식장이 없는 협소한 캠퍼스와 내실없는 식을 준비한 대학당국, 지금의 새내기들의 졸업식장 역시 주차장이 아니었으면

열 악한 교육환경속, 사범대 평가인준제 대비 문제점

사범대 내년도 평가인준제 시행, 현재로선 기준미달

부속 고교설립, 교수충원, 교과과정 · 환경 개선 절실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교육개혁법에 의해 본교 사범대를 비롯한 교원양성기관이 평가인준제를 받게된다. 정부는 현재의 수요를 초과한 교원양성수를 줄이기 위해 평가인준제를 실시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의 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리 학교는 내년에 사범대, 교육대학원, 교직이수과정이 평가를 받게 된다.

사범대 학생회측에서는 대학당국과 협의하여 내년에 받게될 평가인준제를 대비해 현재 열악한 교육 환경과 미비한 교육재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지난 학기 사범대학에 제출했다. 요구안은 △교육공학실 확장 △교직과목 · 교과교육 과목 개편 △중 · 고등학교 자매결연 △전공교수 충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부속 중 · 고등학교의 설립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부속 중 ·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사범대측에서는 자매 결연이나 협력 학교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교육 환경도 기준 미달이어서 교육매체 실습실의 보완이 시급하며, 현재의 교직과목과 교과교육도 너무 이론에 치우쳐져 있다. 또한 교과 선택의 제한이 많아 폭넓고 다양한 지식의 교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

교과교육 전공교수도 열악한 상황이다. 각 과마다 전공교수가 1-2명을 넘지 않는 상태이며 주로 서양어대의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사범대 학생회 교육부장 박성호(사범 · 독교 3)군은 "사범대는 사범대로서의 전문성과 목적적 기능을 가져야 하며 이런 원칙을 무시한 정부의 교육개혁안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내년에 당장 평가인준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평가인준제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시급한 부속 중 · 고교 설립의 문제와 전공교수 충원, 교과 과정 개편 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무엇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사범대 학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진 상태이나 아직 정부의 평가 관련 세부 항목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활동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사범대 학장 박기덕(불어교육과)교수는 "3월이나 4월 달쯤에 구체적 평가 항목이 나온다"라며 "아직 평가대상과 평가항목이 미결정 상태이므로 체계적인 연구가 어려워 지금은 이렇다할 성과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가인준제까지는 1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1년의 준비 기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교수 충원이나 부속 중 · 고등학교의의 자매 결연 등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조영탁(사범 · 영교 2)군은 "아직까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러나 학교의 사범대 발전의지와 학생들의 관심이 없다면 외대 내에서 사범대의 위치가 위태롭게 될 것은 확실하다"라고 대학당국과 학생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동훈 기자

직 원노동조합의 문제점 ①인사정책

불합리한 인사정책 개선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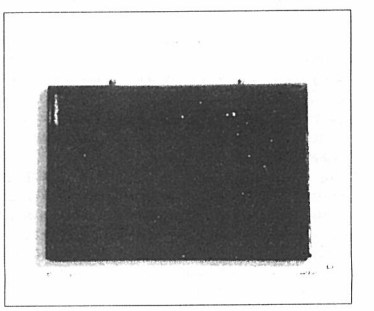
노조원 · 비노조원 차별인사도 심해

87년 우리학교에 직원 노동조합(노조)이 생긴이후 노조를 중심으로 많은 직원의 권익보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몇년전부터 대학당국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을 우선 승진시키는 등의 인사정책으로 많은 직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노조의 힘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우리 학교의 노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우리 대학 노조의 어려움, 하는 일을 학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최근들어 노조와 대학당국간에 가장 큰 어려움은 인사문제이다. 우리학교는 80년대부터 직원을 공개채용으로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91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후 우리학교의 인사권이 총장에서 재단이사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모든 직원들을 재단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개정된 사립학교 법으로 인해 문제가 된 예가 있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이 동원재단의 사무처로 발령된 것이다. 이 문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채용된 직원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원이지 재단의 직원이 아닌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92년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대학 직원이 재단의 직원으로 발령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장건씨는 "대학에서 일하기 위해 들어온 인재를 재단으로 보내고 재단 직원을 학교로 보내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노조의 힘이 많이 약화됐던 지난 96년, 대학당국이 노조와의 협상 끝에 그 조항마저 삭제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대학당국의 인사정책에 문제가 많음을 시사했다.

이 문제는 해당직원들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일을 해보지 못했던 곳으로 발령 받음으로써 여러가지로 미숙해 학생, 교수도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장건씨는 "대학당국은 이와같은 잘못된 인사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최종입장을 정리했다.

명재권 기자

1996학년도 추가경정예산 공고 (학교회계 자금예산서)

교비 및 기성회비 회계 (1996. 3. 1 ~ 1997. 2. 28) (단위 :천원)

수 입	
1. 납입금	(55,885,000)
(1)입학금	2,378,250
(2)수업료	34,283,130
(3)기성회비	19,223,620
2. 전입 및 기부수입	(9,380,000)
(1)경상비전입금	1,894,000
(2)자산전입금	350,000
(3)지정기부금	4,350,000
(4)연구기부금	1,450,000
(5)시설·설비보조	380,000
(6)도서관보조	500,000
(7)자구노력지원	450,000
(8)기타보조금	6,000
3. 교육부대수입	(3,305,000)
(1)입학원서대	81,000
(2)수험료	2,379,000
(3)증명료	115,000
(4)대여료 및 사용료	220,000
(5)기타교육부대수입	510,000
4. 교육외수입	(2,240,000)
(1)예금이자	2,000,000
(2)잡수입	240,000
5.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4,350,000)
(1)건축기금인출	4,300,000
(2)장학기금인출	50,000
6. 고정자산매각수입	(20,000)
(1)차량운반구매각대	20,000
7. 유동부채입금	(1,300,000)
(1)장기차입금차입	1,300,000
자금수입 총계	(76,480,000)

지 출	
1. 인건비	(32,165,000)
(1)교원인건비	21,060,000
(2)직원인건비	11,105,000
2. 관리운영비	(5,970,000)
(1)시설관리비	2,850,000
(2)일반관리비	1,620,000
(3)운영비	1,500,000
3.연구학생경비	(13,450,000)
(1)연구비	2,170,000
(2)장학금	900,000
(3)학비감면	5,550,000
(4)실험실습비	550,000
(5)학생지원비	1,450,000
(6)기타학생경비	370,000
(7)입시수당	580,000
(8)입시경비	1,880,000
4. 교육외비용	(260,0000)
(1)지급이자	260,000
5.투자와 기타자산지출	(6,150,000)
(1)건축기금적립	4,420,000
(2)장학기금적립	60,000
(3)퇴직기금적립	250,000
(4)기타기금적립	1,360,000
(5)전신전화보증금지출	10,000
(6)기타자산지출	50,000
6. 고정자산매입지출	(17,760,000)
(1)토지매입비	210,000
(2)기계기구매입비	3,500,000
(3)비품집기매입비	600,000
(4)차량운반비구매입비	200,000
(5)도서구입비	1,550,000
(6)기타자산지출	11,700,000
7. 고정부채상환	(725,000)
(1)장기차입금상환	666,000
(2)차관상환	50,000
(3)임대차보증금환급	9,000
자금지출 총계	(76,480,000)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무처장

1997학년도 예산 공고

교비 및 기성회비 회계 (1997. 3. 1 ~ 1998. 2. 28) (단위 :천원)

수 입	
1. 납입금	(58,119,894)
(1)입학금	2,288,100
(2)수업료	35,594,301
(3)기성회비	20,237,493
(4)단기수강료	
2. 전입 및 기부수입	(12,000,000)
(1)경상비전입금	2,026,000
(2)지정기부금	6,930,000
(3)연구기부금	1,550,000
(4)시설·설비보조	425,000
(5)도서관보조	560,000
(6)자구노력지원	505,000
(7)기타보조금	4,000
3. 교육부대수입	(2,225,106)
(1)입학원서대	71,206
(2)수험료	1,608,900
(3)증명료	115,000
(4)대여료 및 사용료	30,000
4. 교육외수입	(1,825,000)
(1)예금이자	1,700,000
(2)잡수입	125,000
5. 투자와 기타자산수입	(5,830,000)
(1)건축기금인출	4,420,000
(2)장학기금인출	50,000
(3)기타기금인출	1,360,000
자금수입 총계	(80,000,000)

지 출	
1. 인건비	(37,350,000)
(1)교원인건비	24,880,000
(2)직원인건비	12,470,000
2. 관리운영비	(6,499,000)
(1)시설관리비	3,350,000
(2)일반관리비	1,869,000
(3)운영비	1,280,000
3. 연구학생경비	(14,212,106)
(1)연구비	3,035,000
(2)장학금	960,000
(3)학비감면	5,990,000
(4)실험실습비	600,000
(5)학생지원비	1,552,000
(6)기타학생경비	395,000
(7)입시수당	710,000
(8)입시경비	970,106
4. 교육외비용	(260,0000)
(1)지급이자	260,000
5.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420,000)
(1)장학기금적립	60,000
(2)퇴직기금적립	250,000
(3)기타기금적립	90,000
(4)전신전화보증금지출	20,000
6. 고정자산매입지출	(20,688,894)
(1)기계기구매입비	3,500,000
(2)비품집기매입비	600,000
(3)차량운반구매입비	100,000
(4)도서구입비	1,700,000
(5)건설가계정	14,788,894
7. 고정부채상환	(570,000)
(1)장기차입금상환	520,000
(2)차관상환	50,000
자금지출 총계	(80,000,000)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무처장

추가등록기간 안내

1997학년도 제 1학기 재학생 추가등록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등록기간 : 1997년 3월 10일 (월)부터 1997년 3월 15일 (토)까지
2. 등록장소 : 제일은행 본점 및 지점, 국민은행 본점 및 지점
3. 등록금액 : 등록금 납부 통지서 참조
4. 장학금 수혜 학생은 장학증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할 것
(등록금 납부 통지서에 장학금이 표시된 학생은 제외-차액만 납부)
5. 등록금 영수증은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할 것
(본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1997. 3. 3.

재 무 처 장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안내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예비군(대학원 석 · 박사과정 포함)또는 재직중인 교 · 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전 · 출입 신고
가. 입학, 복학, 편입학, 복수전공자, 재입학자 편성신고
사유발생(등록) 14일 이내에 비상계획관실에 편입신고를 마친 다음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지 읍 · 면 · 동사무소 병사담당예비,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 또는 교 · 직원은 직장예비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휴학 및 제적(퇴학) 전출 신고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비상계획관실에 본인이 전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전 · 출입 신고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양식 : 비상계획관실에 비치)
2) 학적변동 신고서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 지참
2. 현주소 변경시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 또는 교 · 직원은 현주소 변경시 비상계획관실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규위반 고발
정당한 사유없이 전 ·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997. 3. 3

비상계획관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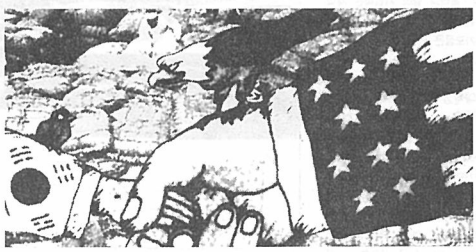
한국경제 총체적 파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원조는 제국주의 경제예속의 디딤돌

남한, 미 군사전초기지와 상품시장으로 전락

글싣는 순서

1. 원조로 시작한 한국경제
2. 경제개발 정책의 본질
3. 주인없는 시장개방
4. 매판자본의 역사
5. 자립경제를 위하여



무상원조의 본질

1947년경부터 미소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 파괴보다도 더욱 심하게 파괴된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기강'을 회복함으로서 노동자의 사회통제를 저지시키고 공산권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유럽을 비롯한 자본주의 각국의 경제재건이 급선무로 제기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위해 소위 마샬플랜 하에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의 공산권에 대한 경제적 봉쇄는 냉전이 열전으로 전화한 한국전쟁을 계기로 군사적 봉쇄로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조의 군사적 성격도 강화되어 1951년의 상호안전보장법(MSA) 에서는 군사원조와 경제원조가 분리되어 있던 이전의 ECA 원조와는 달리 이 두 가지의 원조가 하나의 통합된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즉, 상호안전보장법에 따라 원조를 받는 나라는 국제적 긴장요인을 제거하고 '자유세계'강화에 최대한 기여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며, 이를 위해 원조물자의 피원조국내 판매대금인 대충자금의 일정부분을 군사목적에 배당해야 했다.

이처럼 미국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세계질서재편의 주요물적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1950년대를 통하여 정점을 이루었던 미국 대외원조의 영향력은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원조경제시기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원조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조가 비록 무상증여의 형식을 취한다하더라도, 원조는 원조물자의 국내판매대금인 대충자금 적립이라는 통로를 통해 국내민간자본을 동원하면서 일종의 유상형태를 취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미예속 경제의 출발

미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차관 등의 자본수출과는 달리 자금의 지출에 대해 실질적인 화폐수입이 없기 때문에 무상원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자금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화폐수입은 미국정부 재정 속에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피원조국 정부재정 속에서 대충자금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 대충자금에 대한 사용권리를 피원조국 정부와 공유함으로써 어차피 자신의 대외정책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정 지출금을 미리 피원조국 재정속에 선점해 놓은 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피원조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대충자금의 사용권한이 미국측과 반분된다면 원조물자의 획득과 대충자금이라는 국가자본 형성의 대가로 재정운영의 권리 일부를 양도한 셈이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피원조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 종속적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54~1960년(회계년) 동안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약 7500억환이었고, 그 중 약 35%가 국방비에 충당되었으며 62%가 경제부흥사업에 충당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국방비와 경제부흥비로 일정하게 분할된 대충자금 운용을 통하여 국민경제력 수준을 초과하는 군사비를 보완하는 동시에, 과도한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경제구조를 창출해 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기 한국의 국방비 재원은 약 40%를 대충자금 재원에 의존하고 나머지를 국내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국내재원의 약 32%는 적자재정재원에 의존하고있었다. 그렇다면 건전한 국민경제의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국방비의 지출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무기나 장비를 위주로 하는 군사발전과 군 증강비는 미국으로부터의 직접 군사원조에 의해 충당되었기 때문에, 기존 장비나 병력을 유지하는데 충당되는 예산상의 국방비는 일차적으로 과대한 병력규모나 관련되며 그 과대한 병력규모는 한국군대의 역할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남한, 미 군사전초기지로

한국의 병력규모는 한국전쟁의 결과 체결된 19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약속된 20개 사단 72만의 병력이 기본골격이었으나,. 북진통일론에 기반한 이승만의 요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배증을 요구했다. 이후 1950년대 중반에는 소련 봉쇄를 위한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에 대한 미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는 소련의 제3세계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응하여 미국 내에서 대두한 제3세계 국가에 대한 개발주의에 따라 한국군 규모와 그 역할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삭감계획은 18개 사단 63만으로 한정되었고, 국민경제력을 초과하는 한국군의 임무는 자국방위를 넘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적 공헌이 때로는 암묵적으로 때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결국 이러한 한국군의 임무는 가까운 장래에 월남파병으로 현실화했던 것이다.이처럼 한국에 대한 미국원조의 중점은 대공산권 전초기지의 확보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 발전방향을 이 목적 수행에 직접형태로 규정하려 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중심의 아시아 지역통합체 속에 한국을 위치시킴으로써 아시아에서의 군사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제헌헌법의 경제조항이 지니는 통제관리경제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이승만 정권의 국가주도 산업화는 1953년 원조자금을 재원으로 한 628백만불의 종합경제부흥계획으로 표현되엇다. 이 계획은 국가에 의한 기간산업시설의 확충과 국내민간자본의 육성을 중점으로 하여 입안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원조의 수준을 한국전쟁 전의 발전수준으로 한정하고 투자에 대한 재한적 비율을 설정하고 있었던 미국으로서는 이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우기 원조의 기본목적이 군사력 유지를 위한 안정적 경제기반에 있었던 미국으로서는 20개 사단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경제개발로 충당될 수 없는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곧 미국부담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이 계획안은 총수요액의 30%를 통화증발에 의해 조달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곧 인플레를 의미하며 군사력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조성하기위해서는 미국자금의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우기 일본상품의 구매가 아니라 수입대체공업화를 추구하는 방향은 일본 중심의 동북아시아 지역경제체제를 통하여 원조자금을 재순환하려는 미국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3년에는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약에서는 원조물자의 소재내용, 구매권과 구매지역문제, 환율문제 등이 타결되었다. 특히 그간 과대평가되었던 한화는 달러의 양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수입된 자본재와 중간재의 비용을 낮추어서 투자와 생산의 유인책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협약을 통해 환율의 현실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내경제와 국제자유시장경제와의 연도은 불가피하게 되고 국내경제에서의 국가통제도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이후 국가 주도의 수입대체공업화는 원조재원을 기반으로 한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부흥부의 설립으로 이어져 나가지만, 관리통제경제의 완화는 1954년의 헌법개정으로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57년이후 미국의 원조삭감경향에 의해 더욱 촉진되게 된다. 즉 원조의 삭감경향은 원조재원을 주유기반으로 하고 있던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새로운 재원조달의 필요성으로 제기하게 했고 그 입안으로 민간자본의 동원이 추구되었으며, 국내재원에 의한 민간자본육성 방침은 1958년의 자산평가기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민간자본의 산업자본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증권시장이 개설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조의 삭감을 배경으로 하는 일련의 자유시장경제화는 1959년의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해 절정에 이루게 된다. 이처럼 확산되어가는 자유시장경제에카니즘과 원조의 삭감에 대체할 일본경제와의 지역적 분업구조형성의 요구는 국가주도하의 대일 방어적 산업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승만 정치권력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원조, 미국이해 관철의 수단

요컨대 미국은 원조의 운용을 통해 정치, 군사, 경제 등 주요면에서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있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해란 아시아에 있어서 반공전초기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군사와 경제의 각 부문이 일정하게 재편되었다. 미국은 한국에 반공정권이 존속하는 한 국방비에 대한 국내재원의 과도한 염출을 감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방비에 있어선, 비록 적자재원에 의존하더라도 국내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다. 그리고 일본과의 지역적 통합구상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었던 국가주도 산업화를 억제하면서, 안정적 군사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제안정'에 중점을 둔 한국경제의 재편을 위해 경제부흥비에 보다 많은 대충자금을 할애했던 것이다.

신 용 옥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 박사과정〉

해방이후 북한과 남한의 농지개혁

자주적정권, 완벽한 농지개혁 이루어내

해방된 조선의 당면과제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었다. 봉건적 착취기반을 소멸시키는 토지개혁은 지배계급의 경제적 기반을 없애고 동시에 친일계급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반제국주의 혁명의 일환이었다.

혁명성 높은 농지개혁

남한과 달리 자주적 인민정권을 수립한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은 단순히 농지라는 주 생산수단의 분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타 보조적 생산수단의 재분배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동시에 비료, 농기구, 종곡 등 농업에 필요한 상품의 조달을 농업협동조합과 국가공공기관에서 말도록 하여 농업경영에서 자본주의적 수탈의 물질적 근거를 제거시켰다. 여기에서 북한의 토지개혁은 봉건적 착취형태만을 제거한 남한의 자유주의적 토지개혁과는 질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소작인들이 또다시 소작인으로 전락함으로써 봉건적 착취가 재생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그 혁명성이 높다.

개혁의 주체 북한 농민

또한 북한의 토지개혁은 정권이 규정하는 법과 시민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된 실천 사이에 괴리가 없는 철저한 개혁이었다. 이것은 농민이 적극적인 개혁 주체가 되었기에 가능하였다. 해방 당시 소작지 가운데 북한의 경우 99%가 무상몰수되어 소작인, 머슴, 반소작인에게 무상으로 재분배되었다. 여기서 약 1%의 괴리는 주로 민족해방투쟁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토지로서 무상몰수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농민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토지개혁부터 정권차원의 공식적인 토지개혁에 이르기까지 개혁주체자(reform maker)로서있었다. 특히 공식적인 토지개혁을 수행하는데 있어 머슴, 순소작인, 반소작인 등은 농지위원회의 주된 구성원이자 또 핵심적인 집행자로서 국가관료기구가 수행해야할 업무를 대신하여 주체적으로 완수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업노동자, 순소작인, 반소작인으로 구성된 농지위원 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되었다. 이것은 농지위원회에서 소작인 구성이 2분의 1정도였고 그 기능이 자문역할에 그쳤으며 국가 관료에 의해 조사, 계획, 재분배가 이루어짐으로해서 이해관계 당사자인 농민이 단순한 수혜자일 수 밖에 없었던 남한의 경우와 크게 대조된다.

4주안에 완료된 완벽한 개혁

마지막으로 북한의 토지개혁은 해방된 지약 6개월만에 시행되고 공식적인 시행 이후 4주 미만의 기간내에 완료된 급속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지주계급이 토지개혁을 피하기 위해 농지의 강매나 은폐 등을 자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에 반해 남한의 경우 해방된 뒤 5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공식적인 토지개혁이 시작되어 그동안 지주들은 토지의 강매나 변칙적인 형태로 그들의 경제력을 지속함으로써 새로운 체제에서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북한의 토지개혁이 비록 3주라는 짧은 기간에 완수한 것이지만 그 철저함, 혁명성, 신속성 등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앞설 수 있었던 까닭은 지도부가 대중적 역량을 고양시켜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해결되었던 데 큰 원인이 있다. 이런 완벽한 토지개혁을 계기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많은 농민을 당으로 이끌어들여 당의 대중적 기반을 넓힐 수 있었고 점차 사회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정리 박노라 기자

『강정구, 한국사 21 (한길사) '인민정권의 수립과 민주개혁' 중에서 발췌』

큰 사람은 큰 계획을 세웁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라던
시인의 싯귀처럼
어김없이 새로운 세계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일년을 시작하면서
알찬 계획은 많이 세우셨나요?
명작 감상, 세계속의 인터넷, 영어정복,
배낭여행, 친구만들기 등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면
결과 또한 좋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건전한 이성, 따뜻한 마음, 건강한 몸으로
지혜의 옷을 입고, 학문을 방패 삼아
세상의 중심으로 다가가는
큰 계획들을 세워 보십시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
포항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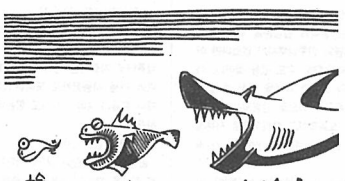
학술논단

국가권력 집행의 민주적 다양성, 특별검사제

현시기 한보사태 특검제 도입 필요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속에서 출범하였던 이른바 문민정부는 이제 김영삼대통령의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보사태라는 대형 권력비리 사건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문민정부에 대하여 근본적 회의가 들도록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1세기에의 진입이라는 시대적 전환기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까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권력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되는 것이 바로 특별검사제의 도입문제이다.

특별검사제란 미국과 아르헨티나 같은 일부 국가만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통상적인 국가의 소추기관으로서의 검찰대신에 비상설적으로 임명되는 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상의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권한은 검찰에게 맡겨져 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소추권을 독점케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는 일정한 경우에 이러한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으로 찬반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5.18 관련단체들이 국회에 특별검사제입법 청원을 하였으며 96년 11월 5일 야당(국민회의, 자민련)은 공동으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지는 견해는 주로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고 있다. 원래 기소 독점주의는 공소권의 적정성을 보장해주는 순기능적 측면과 함께 검찰의 관료주의화에 따른 검찰독재의 가능성과 검찰의 정치화에 따른 정치도구화라는 역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서 특히 기소 독점주의의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즉 대형 권력형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처리결과와 주장이 반복되어 오고 있다. 이번 한보사태 수사이전에도 5공때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의 고문관련사건, 6공초의 '5공비리 특별수사' '수서사건' 또한 문민정부초기의 '또탄사기사건'에서부터 94년 통합선거법 개정시, 12.12사건과 5.18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이 제도의 도입이 주장된 바 있다.

특별검사제를 반대하는 견해를 보면 첫째 헌법상 수사-소추권한은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이를 담당할 공무원의 임명권한 또한 대통령에게 속하므로 국회가 그 임명을 주도하는 특별검사제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나고 결국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다. 둘째 특별검사제 자체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이다. 기존의 검찰조직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검사로 하여금 정치권력의 영향력으로 부터 벗어나 수사토록 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조작된 여론과 선동정치에 노출됨으로써 특별검사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특별검사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대형정치비리사건의 경우 수사내용이 방대한데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 밖에 기존 검찰조직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불신속에 국가질서가 붕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는 없는가!? 우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들 수 있다. 재정신청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자가 법관의 결정을 통하여 재판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과거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인정(형사소송법206조)되어 왔으나 지난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에 까지 재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동법 제273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기소독점주의하에서의 공소권의 불평사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소원사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대형 정치적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의 '적당한' 수사와 소추에 대해서는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여러가지 논리성과 기술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특별검사제의 도입만이 능사는 아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미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Independent counsel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특별검사는 신분보장과 함께 FBI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실제로는 닉슨 대통령이 관련된 워터게이트사건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된 반면에,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각각 관련된 이란-콘트라사건과 화이트워터사건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거나 그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1989년 4월 다케시다 총리의 퇴진을 가져온 리쿠르트사건이 보여주다시피 특별검사제 없이도 검찰의 중립성이 완전히 보장된 예로 꼽히고 있다.

우리의 경우 '검사의 신분보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밤을 불밝히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대형 권력형비리사건처리결과에 대하여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1988년 12월 31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검찰청장의 임기(2년)를 보장한데 이어 금년 1월 17일 개정에서는 검찰청장의 퇴임후 2년내 공직취임과 정당가입을 금지하였다 이제는 특별검사제도 도입해보고 또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도입도 생각해 보자.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또한 국가권력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조직될 수 있음을 우리 각자가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번 해 철
〈법학과 교수〉

민주화 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1차 학술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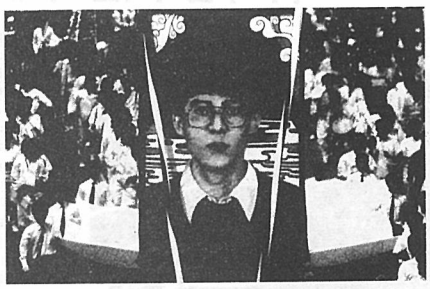
민주열사 명예회복은 역사바로세우기의 전제

법적·도덕적예우, 진상규명, 교과서 기재 등 시급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1차 학술세미나'가 지난 6일(목) 성공회대성당에서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 세미나는 3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번 1차 세미나에서는 열사가 생기게 된 원인과 민주열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방안들에 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는 민족문제연구소 김봉우 소장과 친일문제연구회 김삼웅회장이 맡았고 토론에는 사월혁명연구소 정병호 사회분과 위원장,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박래군 사무국장과 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 연구위원 김지형씨, 한겨레 신문 손석춘 기자 등이 참여했다.

열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김봉우씨는 우리민족이 제국주의의 침략이 시작되었던 조선말기 우리에게 주어진 내부 혁신과 국권 수호라는 역사적 과제와 해방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통일과 자주적 정권 수립이라는 과제를 이루지 못한데 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전에는 일제에게, 해방후에는 분단정권과 그 배후에 있는 미국에 의해 폭압통치로 억압받아왔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체계적인 경찰력, 고문장치와 여러 가지 악법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폭압적 통치에 희생되거나 반대하여 앞장서 싸웠던 사람들을 '열사'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열사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개인적 의지로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넓고 깊다는 사실에서 찾아야한다

이어 김삼웅씨는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분신, 투신, 자결, 단식 등 자기희생적 항쟁이 대부분인 것은 타도의 상대가 동족인 관계로 인한 비폭력주의, 평화주의, 동포주의의 발로에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박래군씨는 우리나라에서 자결형태가 많았던 까닭은 평화주의적 동포애적인 개인적저항이 아니라 우리운동이 조직적으로 미성숙하고 미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한겨레신문 기자 손석춘씨는 열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언론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것에서 찾았다. 언론의 침묵과 외면때문에 열사들이 삶을 던졌음에도 언론은 어느 시인의 입을 빌어 죽음의 굿판을 집어치우라, 왜 생명을 경시하는가라며 말도 안되는 훈계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김지형씨는 열사의 자결에 대한 문제가 우리 운동의 조직성 미약으로 촉발된 것이라는 분석으로는 80년대이후의 열사들을 설명할 수 없다며 열사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개인적 의지로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넓고 깊다는 사실에서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열사, 희생자들에대한 명예회복방안에 대해서 김삼웅씨는 역사바로세우기에서 가장 선행되어야하는 과제는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생명을 던진 민주열사와 희생자, 그리고 민주화과정에서 의문사당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법적, 도덕적 예우와 진상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 합동 위령제, 민주열사, 희생자묘역의 성역화, 교과서 기재, 추모주간 설정, 의문사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와 가해자, 국민대표로 이루어지는 '진실과 화해 위원회'구성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 박래군씨는 피해자나 가해자간의 화해나 화합은 불필요하거나와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업에는 가해자는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김지형씨는 가해자, 피해자간의 맹목적인 화해는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참다운 역사 바로 세우기는 통일되지 못하고 외세의 지배가 아직 남아있고, 사이비 문민정부가 존속하는 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발언을 마쳤다.

박재성 기자

학술단신

박종철 출판사, 맑스엥겔스선집 완간

연대순 정리, 폭넓은 이해도움

박종철 출판사가 1991년 4월에 [맑스,엥겔스 저작선집]권을 발간한 이래 약 7년만인 97년 2월에 제 6권을 발간하여 [맑스,엥겔스 6권 저작선집]을 완간했다.

이 책은 1987년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열사의 뜻을 기려 1990년 설립한 박종철 출판사가 첫 사업으로 시작했던 야심작이다. 80년대 이래 국내에서 번역된 맑스주의 원전들은 전반적으로 간행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각 저작의 특정시기나 특정 저작에 편중되어 자의적이고 제한적이거나 왜곡된 해석이 많았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박종철출판사는 편집의 권위를 신뢰할 만한 독일의 디츠 출판사의 [6권 저작선집]을 대본으로 삼고 번역자의 번역, 일정한 소양을 갖춘 사람들에 의한 공동교열, 감수자의 치밀한 검토 등의 방법으로 오역을 최대한 줄이려 했다.

이 선집은 또한 맑스, 엥겔스의 주요한 저작들과 서한들이 연대순으로 정리되어있어 체계적이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있다.

중국어과 철학세계연구학회를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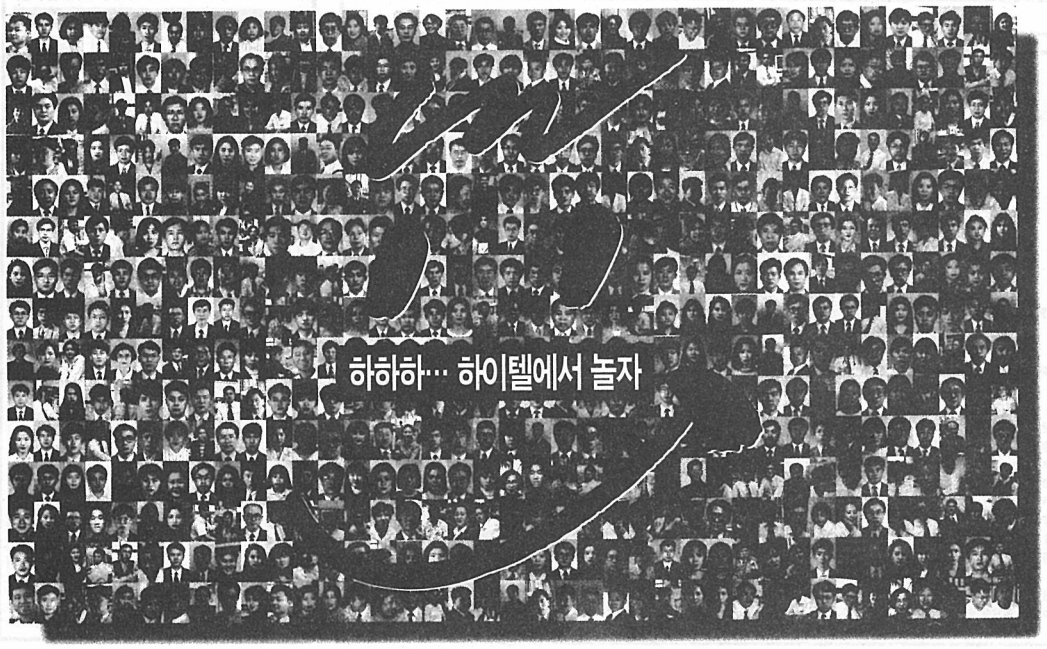
"사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곧 철학이다."

댓거리 여행

사회과학회 10년의 역사! 결코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다. 10년동안 시대도 많이 변했고 사회과학회들도 많이 변했다. 하지만 80년대 선배들의 순수하고 치열했던 열정들을 자금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학회가 있다. 중국어과 철학세계연구회(철세)가 그것이다. 학회활동의 부진과 침체의 분위기에 대해서 회장 구은미(동양,중국 2)양은 "학회가 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세미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때까지 받아왔던 주입식 교육으로 우리사회에 대해서 편파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오면서 당연히 진실을 알아야하지 않는가?"라며 모두들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한다. 철세는 10여명정도가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데 이번 방학때는 일주일에 2번씩 모이면서 세미나를 했다고 한다. 철학, 역사, 노동, 경제, 여성 등의 분야에서 책을 한권씩 선정해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책을 두 번씩 읽는게 철세의 특징이라고 한다. 구양은 "철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선은 난해하게 여기거나 꺼려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은 내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철학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만의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나가게 하는 철학이라는 말이다"며 철세의 철학관을 소박하게 밝혔다. 현재 철학세계연구학회의 지향점은 무엇이냐는 말에 담연히 '통일'이라고 말하는 철세는 우리의 현실에 가깝고 적합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다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새내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 구양은 "자기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고 싶다면 우리 사회와 거기에 몸담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해야할 일이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쇄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12년을 살아온 우리 새내기들에게 여러 가지 지적인 욕구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망설이지 말고 사회과학회로 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강을 맞아 새내기들에게 5.18 광주민중항쟁당시의 비디오를 상영을 계획하고 있는 철세는 이제 10년의 전통을 계승, 혁신하여 보다 깊고 체계적인 학습과 고민을 통해 외대 사회과학회의 자존심으로 우뚝서기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박노라 기자

더불어 함께하는 하이텔 -



네티즌의 고향 하이텔 -

하이텔에는 한국외대통신동호회가 개설,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 go hufs

하이텔 봄축제 한마당

꿈과 희망으로 봄을 맞는 새내기 여러분!
보다 멋진 새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이버스페이스로 오십시오.
하이텔이 펼치는 봄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당장 하이텔에 가입하세요.
평생 잊지못할 깜짝 행운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이텔에 가입하는 신규 이용자중 정상이용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행운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 신규 가입자를 위한 특별 사은행사도 실시합니다.

■사은품
대 상 (1명) : 대우자동차 누비라 1대
1등상 (2명) : 핸디형 PC 각1대
2등상 (5명) : 휴대전화 CT-2 각1대
행운상 (100명) : 인터넷 어드벤쳐(CD-ROM) 각1
■당첨자 발표일
하이텔 공지사항 및 맑스포츠, 스포츠서울 6월 9일에 공개합니다.

■여성이용자를 위한 특별 사은행사
여성상 (1명) : 핸디형 PC 1대
특별상 (5명) : 휴대전화 CT-2 각1대
※500, 1000, 3000, 5000, 10000원에 여성이용자만 배정
행운상 (100명) : 인터넷 어드벤쳐(CD-ROM) 각1개

※ 신규 가입자에게는 HITEL pack(하이텔 전용 이야기 7.0, 7.3)을 무료로 드립니다.
※ 가입 / 문의 : 080 - 022 - 1410, (02) 513 - 2200

정보문화의 꽃
한국PC통신
Korea PC Telecom Co.,Ltd.

동계 단기 연수 - '중국 역사문화 탐방'

해외 연수 관광 아닌 학습의 장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기회로 개선 요구

우리학교에는 특성상 어학전공자가 많기 때문에 유독 방학동안에 연수를 다녀오는 학생, 사설 회화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에 전공외국어를 사설기관을 통해 배우는 학생들이 많다. 교과과정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에서 작년 등록금투쟁을 통해 30대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등록금투쟁의 성과물을 느낄 수 있는 현장학습제도인 방학중 연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전부터 이러한 연수를 제도적으로 보장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대나 기타대학이 이미 몇년전 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나도 뒤늦게 실시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번 연수에 많은 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첫째 홍보의 문제 즉, 학생선발 과정상 선발기간이 짧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관심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또 참여한 학생들은 준비기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단대학과장이 선발한 학생선발에 조교가 가는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 셋째 연수단의 일정이 문화유적지를 위주로 돌아다니고 벅차게 짜여져서 연수보다는 관광이라는 느낌이었으며 호화로운 호텔과 음식점만을 다녔고 외국인 전용 상품점을 하루에도 한번이상 다녔다고 한다. 넷째 더녀온 사람중에는 이번 연수가 왜 이루어졌으며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를 비롯하여 행사의 이름마저도 모르는 이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학생처의 담당직원은 이번에는 예산이 늦게 책정되서 준비기간이 없었다면서 교수학생협의회의 열지않은 잘못을 말하고 앞으로는 충분히 준비할 것이라 했다. 그러나 단대별로 학과장에게 추천받은 학생은 한달 전에 결정이 났지만 총학생회에게 두 명을 추천하라고 여행 2주일 전에 전달돼 여전히 의혹을 낳고있다. 단대별로 학과장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조교가 직접 이번 연수에 참가한 경우도 있어서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가질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수단에서는 사비가 좀 들더라도, 좀 덜 좋은 숙식을 하더라도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지체 평가를 내렸다. 말이 많았던 연수단의 잦은 외국인 상점 출입은 중국정부가 외국여행사에게 적용하는 원칙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조차도 알고보면 연수차원의 일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것이다.

연수단 학생대표였던 손병묵(동양·중국어 4)군은 "중국 역사문화탐방을 통해 중국역사를 많이 배운 기회가 되었으나 중국인들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문화를 알기는 어려웠다"고 하면서 분명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등록금투쟁을 통해 얻어낸 것인데 학교측의 의도와 기획인 줄만 아는 학생이 있어서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수는 분명 가을에 서울배움터에서는 등록금투쟁을 통해 재단전입금도 아닌 등록금 인상분을 실물적으로 전환한 것이며 작년 100여명의 민주납부자가 없었다면 이런 제도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뒤늦게야 시작된 외대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우리의 등록금 수익으로 진행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일이며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합의서에도 이 연수를 확대·발전시킨다고 나와있다. 우리학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현장학습제도에 우리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성과점과 우류점이 무엇이었는지 지적하고 개선하여 더욱 발전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지나 기자

작은 차이가 살맛나는 외대를 만듭니다

<6> 사운드 라이브러리

1971년 11월 15일. 동양 최초의 사운드라이브러리가 우리학교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동양 최초로 세워지며 외국어회화 교육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운드라이브러리는 오늘에 와서 이런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용 인

▲정석호(서학·독일 4)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오디오 기기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리고 컴퓨터로 자료찾는 방식이 복잡해 새내기가 컴퓨터 위의 벽을 사용짤차로 도배한 걸 하나하나 보려면 페나 힘들다. 4학년인 나도 힘든데 새내기들은 오죽하겠나!

▲김재영(인문·사학 2)

공강시간에 사람이 많으면 5대밖에 안되는 컴퓨터로 자료를 찾느라 으레 길게 줄을 서기 마련이다. 그리고 컴퓨터가 자주 다운되어 번거로울 때가 많다.

▲김면주(서학·영어 4)

각 자료들이 새로 등록할 때 신규등록이라는 구분을 해 언제 자료가 들어오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비디오 시청시 예전에는 헤드폰으로 청취했으나 이어폰으로 바뀌어 장시간 사용 후엔 귀가 가끔 울린다. 비디오 대출은 일인당 하루에 하나, 녹음신청도 오디오 테일만 허용하는 조항은 학생의 편의를 고려해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다.

▲김미화(서학·서반아어 3)

사운드 라이브러리의 이용시간이 제각각이다. 행사가 있어 학교내 학생이 빠져나가는 날이면 예고없이 알아서 일찍 닫는다. 그렇지 않아도 자료도 부족한데 그나마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서 울

▲정일(상경·경영 91)

어문계열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공간이 상당히 낙후되었고 비좁다. 과연 외대의 진가를 어디서 찾아야 할 까 의문이다.

▲조윤정(서양·서반아어 92)

시험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리가 없어 자리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자료가 있긴 한건가, 찾는 자료마다 없다.

▲김현(일본어과 휴학 중)

자료 찾기가 힘들뿐더러 그 수와 질이 떨어진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엄청 당황스럽다. 컴퓨터 이용이 어렵다. 또한 시설 고장과 음질상태 불량으로 애로점이 많다. 그리고 사운드라이브러리 활용도에 있어 극히 제한적이다.

▲최우현(동양·중국 2)

전공수업 자료가 부족하고 특히 실용영어 자료의 수가 부족한 듯 싶다.

함철우·김학영 기자

생활 시평

대자보 윤리

동물들은 자신의 활동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자기 영역과 다른 동물의 영역 사이에 '배설물'을 분비한다. 또 영역다툼이 발생하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역은 생존을 위한 음식제공의 장소이자 번식을 위한 출산과 양육의 장소이다. 한마디로 영역은 생명유지의 기본인 것이다. 그러나 무질서해 보이는 동물들의 영역은 실제로 아주 점돈돼 있고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 영역을 침범하는 일은 금지돼 있으며, 침범은 곧 싸움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싸움이 있은 후 몇 달 동안은 다시 침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동물들은 그래도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개강이 되면서 배움터 곳곳에는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한 대자보들이 난무한다. 그야말로 '난무한다'는 표현 외에 다른 말을 쓸 수 없을 만큼 무질서하다.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도 지켜지고 있는 '질서'를 대자보에서는 찾을 수 없다. 대자보 붙이는 장소의 개념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대자보를 붙으며 걸어다녀야 할 만큼 이미 붉은광장은 바닥에 붙이는 것이 점례화 됐고, 학생회관은 층계에서부터 창문까지, 심지어는 천장에까지 대자보가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다.

대자보를 붙이는 데 있어 앞에서 언급했던 '무질서'와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대자보 윤리'문제. 대자보 위에 또다른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다. 날짜가 지난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이 경우에도 그 위에 붙일 것이 아니라 떼어내고 새 대자보를 붙여야 한다- 아직 유효한 대자보 위에 버젓이 다른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는 '비윤리'적이다.

대자보는 나름대로의 목적성을 가진다.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동아리들의 새내기모집 대자보는 이후 동아리를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다는 차원에서 동물들의 생명유지와 비슷하다. 그러나 동물들 사이의 영역싸움에 있는 규칙들이 대자보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자보 윤리가 필요하다.

박재성 기자

새내기맞기

우리를 뭉치게 하는 것, 나의 사랑 외대

내가 외대에 들어온지 언 2년. 시간이 많이 지났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또 한번 이른 새내기들을 만나게 됐다. 그런데 웬지 자신이 없어진다. 뭐,보여줄 것도 없고. 아, 내가 대학에 처음와서는 선배들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였는데 요즘 새내기들은 그게 아닌가 보다. 자꾸만 좁은 곳에서 필하자는 거냐고 밖으로 나가자고만 하고. 아니다. 그런말 한 새내기는 없었다. 내가 지레 그렇게 생각하고 밖으로 나간 것 같다. 에이, 잘 모르겠다. 선배가 된다는 건 정말 부담되는 일이다.

가상으로 꾸며본 한 3학년 학생의 일기이다. 요즘 이렇게 생각했던 선배는 없었는지 선배된 자신의 모습속에서 새내기들의 주장대로 이끌려 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자. 개강 첫날 3일 12시쯤 교문을 우루루 빠져나온 외대인들은 식당을 거쳐 정처없이 떠돌다가 여기저기 커피 전문점에 15명쯤되는 대부대를 이끌고 들어간다. 돈도 돈이거니와 커피전문점에 가게 되면 여럿이서 모여 앉을 자리가 없어 일대혼란을 겪게 된다. 이윽고 자리를 잡으면 분산된 분위기에서 새내기들은 진정한 대학의 문화, 집단적인 문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학교앞 'ㅂ'커피전문점 주인 아저씨는 열댓명이 집단을 이뤄 하루에 한두 차례 1시경과 저녁식사이후 시간에 온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ㅁ'커피전문점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학교안에서 만난 한 학번은 밖으로 나가야 웬지 뭔가가 있어보인다고 했다. 졸업한 선배들은 발전적 건설적인 일을 해야할 시간대에 대학생이 어둠고 구석지고 집단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곳을 향한다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고대같은 경우 제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무엇이든지 집단적으로 하는, 고대의 경우는 빨간 깃발아래 학생들이 모인다고 한다.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품물패들은 그들 나름의 품물의 역사와 전통을 후배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대한 자부심으로 단합이 잘 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중에서도 잔디밭에서 잔디밭에서 여러 집단이 모여 소리높여 자기 소개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것이 눈에 띈다. 잔디밭에서 선배 동기들과 음료를 즐기며 대화를 하고있던 이상훈(사회과학계열 1)군을 비롯한 많은 새내기들은 흩어지는 모임에서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애교심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선배들이 주체적으로 고민을 하여 이러이러한 것들 과거 우리선배님들이 어땠는지 우리학교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찬 설계를 말해주자. 우리부터 자신감을 애교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한 집단적 문화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자. 우리 자신의 대학문화를 만들어 보자.

홍연화 기자

생협 보여주기

왕산생협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학향상과 공부를 위한

어학연수(7/1~8/14)

특강사업(자동차 학원, 컴퓨터 특강, 토익강좌 등)

장학사업-근로복지 장학생 선발 매월 20만원 지급

◆안전한 먹거리, 질 좋은 생활물자 공급을 위한

식당-이문관 식당 직영

매장운영-왕산의 전매장 직영/입대매장 운영

공동구매사업-다른 대학생협과 사업연대, 공동구매, 공동생산 활동 참여

◆우리의 생활현장 탐방을 위한

문화유산답사(5월경)-사학과 학우들과 함께 우리문화유적지를 방문

생산지 견학(4월경)-환경을 생각하는 기업과 유기농산물 생산 농장을 방문

◆편리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위한

분실물 찾아주기-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을 학생위원회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귀향사업-한가위 때 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한 귀향길을 위한 사업

환경사업-분리수거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학생위원회나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협협동조합학생위원회(학생회관 1층)나 사무국(후생관 3층)으로 오셔서 신청하세요.

왕산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교수.직원.학생)

출자금 : 1구좌(5,000원) 이상

가입비 : 1,000원

문 의 : 0335)30-4153, 0335)30-4192

문화 옹달샘

새 책

김재용 지음

민족문화운동의 역사와 이론2

한길사 /17,000

90년대 들어 민족문학이 더이상 우리 문학의 성격과 방향에 맞지 않다고 하는 이들이 있다. 이를 어찌 봐야 하는가. 민족문학이 우리문학과 맞지 않다면 어떤 문학이 우리의 문학에 적합하다는 것인가. 이책의 지은이는 앞의 민족문학을 부정하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1'에 이어 이책을 썼다. 일제후의 문학, 카프 해소·비해소 문제, 남한 문학, 북한문학, 남북한 문학 등 총 4부로 이루어져있다. 통일이후에 우리문학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상은 분단된 현실의 문학과 분단을 낳은 이전의 일제하 문화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민족문제를 낳은 분단현실이 극복되지 않는한,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지은이는 말하고 있다.

유홍준 지음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

창작과 비평사/12,000

'나의 문화유산답사기'1,2와 '정직한 관객'으로 이미 널리 알려졌으며 80년대 미술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민중미술 평론가라고도 불리어지는 유홍준교수가 미술평론서를 써냈다. 전통이란 가치있는 것의 선택과 해로운 것의 폐기 과정에서 새롭게 세워진다.한시대의 예술적 성취는 작가들의 예술적 생산력 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그 시대 문화능력 전체에 대한 평가 또한 작가들을 연구하는데서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작가론 위주로 우리 민중미술을 비평하고 세계속의 우리미술의 위상,민중미술의 전개과정,북한의 조선화성립과정으로 책을 엮어 나갔다. 우리에게 익숙한 박수근,이중섭을 비롯하여 이응노,변골식 등 여러명의 작가에 대한 비평있으며 외대인들도 많이 보았을 경희대의 벽화 '침념'등 많은 작품들이 책안에 칼라로 실려있어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울 것이다.

이주의 영화

소년 소어

감독 장예가

주연 유약영, 탁종화

영화는 대만 출신의 불법체류자(강위와 소어)와 이민국 심사를 위해 위장결혼하는 미국남자(마리오), 그 남자의 부인(리타) 간의 약간은 복잡해진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다. 소어는 스웨터 공장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강위는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유학생이다. 그들의 일상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인해 항상 불안정하다. 위장결혼 등을 통해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려 하지만 생각처럼 되주질 않는다.

감독은 그들의 일상을 과장되거나 드라마틱하게 보이려 애쓰지 않는다. 단지 꼼꼼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잘한 내용들을 엮어나간다. 그 점이 바로 관객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온다.

이주의 비디오

칼리토

감독 브라이언 드 팔머

주연 알파치노, 손펜

알파치노와 손펜의 매력을 한 껏 보고 싶다면 단연 이 영화가 0순위다. 알파치노는 한 때 잘나가던 암흑가의 중간보스로 변호사 친구(손펜)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다. 이제 그는 더이상 말썽을 피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결심이란 최대한 빨리 돈을 많이 벌어 이 세계(암흑가)를 뜨는 것이다. 그러나 손펜의 배신과 자신의 과시를 위해 건드렸던 중간보스에 의해 지하철에서 최후를 맞는다. 총을 맞고 실려가면서 시작하는 첫 장면과 마지막 지하철 총격장면, 해변에서 여인과 꼬마의 춤추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브라이언 드 팔머의 간결하면서도 빠른 화면 전개와 인생에 대한 감독의 냉혹한 시선을 느낄수 있다.

구분 / 요일	A식단 1배식구	B식단 2배식구	C식단/석식 3배식구
월(10일)	나물비빔밥 (₩1,300)	돈육김치찌개 (₩1,400)	불고기덮밥 (₩1,400)
화(11일)	설렁탕 (₩1,500)	탕수육덮밥 (₩1,300)	하이라이스 (₩1,200)
수(12일)	잡채밥 (₩1,300)	생선까스 (₩1,500)	해장국 (₩1,400)
목(13일)	오징어숙회비빔밥 (₩1,400)	육개장 (₩1,500)	순두부찌개 (₩1,300)
금(14일)	쇠고기덮밥 (₩1,400)	냉이된장찌개 (₩1,300)	김치볶음덮밥 (₩1,400)

* 위 식단은 물품수급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요일	조 식	중식 I	중식 II
월(10일)	홍합 미역국 (₩1,300)	육개장 (₩1,800)	카레 돈까스 (₩2,000)
화(11일)	북어 해장국 (₩1,300)	산채비빔밥 (₩1,800)	포크 커틀렛 (₩2,000)
수(12일)	건새우 아욱국 (₩1,300)	생태매운탕 (₩1,800)	비프 스테이크 (₩2,000)
목(13일)	순두부조개찌개 (₩1,300)	삼겹살정식 (₩1,800)	블로나식스파게티 (₩2,000)
금(14일)	콩나물국 (₩1,300)	곰탕 (₩1,800)	함박 스테이크 (₩2,000)

〈제공: 총무처 후생과·생활협동조합〉

글 순서

1. 번모하는 중국
2. 중국의 대학, 대학생
3. 세계속의 외대, 동문들을 만나
4. 중국과 홍콩, 대만과의 통일 문제
5. 석학인터뷰-중국의 문제점
6. 개혁개방
7. 중국식 사회주의

외대학보 중국취재기

개혁개방의 물결이 대학에도 범람

중국학생들도 토플은 필수

북경의 대학들이 몰려 있는 대학가에서 유흥가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늘어가는 추세라고는 하나 그리 번창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북경외환은행 지점장으로 있는 우리학교 학부형이 빌려준 차를 타고 거리를 구경하다보니 어느새 북경대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고풍스런 건물들과 정원처럼 잘 꾸며진 캠퍼스가 우릴 반겼다. 너무 넓어 다 구경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 대학 외사처장을 만나기로 한 곳으로 향했다.

외국인 유학 등 외국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외사처의 한 직원은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북경대 신문사의 주간교수와 학생기자, 본교 중국어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문과 교수 등도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질문과 답변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중국대학, 대학생들과 한국의 대학, 대학생들과의 차이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북경대를 한국의 서울대와 흡사하리라 생각했던 예상이 빗나갔다. 북경대 출신은 대부분 학자나 연구원으로 진출한다고 한다. 북경대는 문학계와 학계를 이끌고 있었다. 제대학이면서도 정치, 경제면에서의 장악력은 높지 않았다. 반면 단과대인 첨화대학은 우리의 포항공대 격인데 이 대학의 졸업생들은 정치요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장쩌민 주석도 첨화대학 출신이다. 기술자출신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다는게 우리와는 다른 점이었다. 사회주의국가, 유물론 사회라서 정치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노동을 하다가 관료가 된다고 한다.

본교와 93년에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북경 제1외국어대학(제7 외국어대학까지 있음)에 들렀을때도 우리와 다른 점을 많이 발견했다. 중국의 대학은 특성화가 잘 되어 있었다. 그 한 예로 외교관리는 거의 전부 외국어대학 출신들이라고 한다. 북경외대는 지금까지 대사를 108명씩이나 배출했고 현재 재직중인 대사가 54명에 이른다. 외교부의 70%가 북경외대출신이고 참사급은 3-4백명에 달한다고 하니 본교생들이 들으면 놀라 까무러칠 얘기다.

학생들의 생활과 관심사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중국의 대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술문화를 빼고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은 중국학생들은 학교안에서 생활한다는 점이었다. 체육관, 레스토랑, 영화상영관, 수영장 등이 구비되어 있어 특별히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다.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 산다는 점도 우리와 다르다. 교수도 물론 기숙사의 혜택을 입는다. 동아리 활동도 활발했다. 천안문사태 이후 학생들의 시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며 정치성 동아리도 없었다.

학생들의 관심꺼리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북경대 중국어과에 유학중인 우리학교 중국어과 84학번 오규열 선배는 중국학생들의 관심은 한마디로 "돈벌자"라고 결론지어 말했다. 우리보다 더 하다는 것이다. 이건 여러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학과는 서방경제학, 국제경제관계학, 국제경영학, 국제무역, 금융, 회계, 경제법, 전자, 컴퓨터학과 등이었다. 학교 앞 서점은 토플 등 영어 관련 책들로 가득차 있었다. 교육비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졸업생은 정부기관, 공공기업에서 5년간 복무하지 않으면 4년동안 1년에 2만 5천원(한화 25만원)정도를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월급이 많은 외국기업을 선호했다. 북경외대도 절반정도가 외국기업으로 진출한다고 한다. 외국기업이 3,000원(한화 30만원)정도로 월급이 가장 세기 때문에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최고의 직장으로 꼽힌다.

개혁개방의 파고가 대학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음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정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맑스·레닌주의 사상학습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하고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취재진을 이상하게 바라봤을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공산당청년위원회(공청) 활동도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50%이상의 학생들이 형식적이나마 공청에 소속해 있었다. 우리가 만난 공청 간부 학생에게 개혁개방으로 인한 자본주의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과 부정부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외국문화유입은 개혁개방과 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중국경제가 발전한다면 나중엔 외국기업·문화가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부패는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부패척결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곧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한다.

취재가 끝나고 외사처장, 북경대 신문사 주간교수, 중문과 주임, 이곳에 교환교수로 방중에 와있던 중국어과 유성준학장(동양학대)과 우리 일행이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취재진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가 중요하지 않다. 다만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중문과 여학생의 말을 북경대 관련자들과 나누며 중국을 등소평의 '흑묘백묘(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로 대변되는 중국민족의 실사구시 정신으로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중국특별취재단

외대따라잡기

<10>미네르바

미네르바는 서울배움터 학생회관과 인문과학관 사이에 있는 낮은 언덕을 가리킨다.

미네르바라함은 희랍어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네라는 여신과 동격인 이름인데 뜻은 모두가 알듯이 '지혜의 여신'을 의미한다.

여기까지가 항간에 떠돌고 있는 미네르바에 얽힌 이야기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출산들이 미네르바 동산에 관해 품고있는 의문을 한번 짚어보자.

의문인 즉은 이 동산이 과연 평지에 흙을 쌓아 만든 건지 원래부터 존재한 것인지 아니면 산을 깎아 만든 것인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2회 졸업생 조규철(불어과)교수는 "처음 이문터로 이사 왔을 때부터 지금의 그 형태를 간직하고 있었다"며 언제부터인지 학생들 사이에서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말한다.

태생이야 어쨌든 미네르바는 서울배움터 학생들의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화부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잃어가는 사람을 찾아서

외대연극회 공연 '장엄한 예식'

1997년 지금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이다.

그러나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한다.

컴퓨터와 영어회화는 이미 기본이 됐고 자신이 추구하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배울 것도 많고, 할것도 많은 때이다.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 가치있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가끔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교내에도 정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공연과 행사가 있다. 외대연극회 역시 '장엄한 예식'이란 작품으로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작품은 외대연극회 53회 정기공연으로 새내기들에게 대학문화의 맛을 조금이나마 느낄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리라 믿는다. 사회화되어가면서 잃어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 사람이라는 것의 본질에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연극회는 아마추어 연극동아리이다. 변변찮은 소극장 하나 없는 학내 현실 속에서 빈 강의실과 미네르바 등을 전전하면서 연습해 왔지만, 연극회가 이번 공연에 쏟아부은 노력만은 감히 프로의 지고한 영감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환기할 수도 나른할 수도 있는 이 봄날, 연극이라는 청량제를 담신에게 선사한다.

창승완
〈서양·독일 2〉

40회 독립 영화제

우리 시대 노동자의 자화상

지난 3일 열렸던 40회 독립영화제에선 지난 1월 노동자 총파업 정국을 배경으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진지한 삶의 모습을 담은 3편의 독립영화가 상영됐다.

보통의 독립영화가 아닌 제도권 밖의 또다른 독립영화. 이날 본 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었다.

'박종철, 너로부터 시작된…' '전국 노동자대회' '총파업 뉴스 속보' 이들 독립영화는 상업주의와 국가의 통제에 의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왔던 노동자의 이야기를 영상의 언어로써 진실되게 담아내고 있다. 영화제에 참가한 여승비(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3)양은 "열사에 대해 좀더 깊을 알기 위해 왔어요. 영화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라며 이번 독립영화제를 보고 난 소감을 밝혔다.

'박종철, 너로부터 시작된…' 이 영화는 안기부 대공분실에 불법 연행되어 숨진 박종철군의 처절한 외침으로 시작된다. 박종철군의 어머니 박종기씨는 아들의 죽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민주화를 위한 유가족협의회를 꾸려나간다. 먼저 간 손자·손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시는 할머니의 가슴 아픈 절규. 그러나 이런 절규는 박종철, 그가 죽은지 10주기를 맞는 오늘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수배자와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안기부 밀실로 연행되어 고문을 받던 중 난로를 붙잡고 분신을 기도한 김형찬군을 바라보며 우린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 눈뜨게 된다. "민중이 하나 되는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시 민주화의 길을 가겠노라고…" 라며 굳은 의지를 밝히는 박종기씨의 말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13분이라는 짧은 시간속에 상영된 '전국노동자대회'는 우리에게 '단결과 투쟁'이란 슬로건 아래 하나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들의 투쟁은 국민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쟁이다'라고 소리높여 외치던 권영길 위원장.

이 영화는 우리 자신이 현실 속에서 짊어져야 할 짐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장엄한 음악이 깔리며 끝나지 않은 우리의 투쟁의 모습이 하나하나 지나간다. 그리고 그 투쟁의 한 가운데에서 한 노동자가 이렇게 말한다.

"만약 우리가 패배할 지라도 이런 경험은 못잊을 것 같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린 더 큰 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장엄한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가자 노동 해방'의 뮤직비디오까지 등장한 '총파업 투쟁 속보 제 2호'는 기존의 다큐멘터리 영상물에 비해 신선한 형식과 기획이 시도되었다. 이 영화를 제작한 태준식씨는 "영상이란 언어를 통해 투쟁의 현상을 보여주려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다. 시각적 측면과 속보라는 특징을 현대적 영상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위해 노력했다." 며 작품의 의의를 말했다. 총 8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총파업 투쟁 속보 제 2호'는 '내통령의 말씀'이란 부분에서 의도적인 편집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실언과 실정을 코믹하게 보여주었다.

"영상은 강력한 무기이다.

백마디의 말을 한 컷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상이기에"

전대기련 공동 기자단 손정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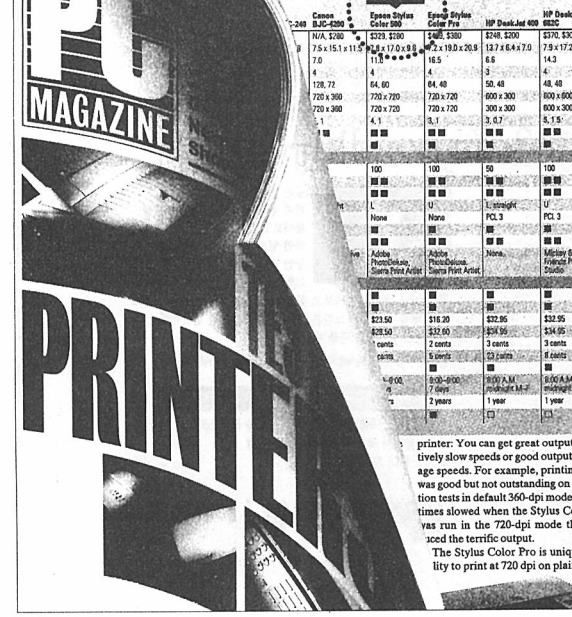
문화단신

서울

울림,신입생영화제 개최

울림에서 개강을 맞이하여 '신입생영화제'를 개최한다. 오는 13일(목)부터 18일(화)까지 대강당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3회(1시, 3시, 5시)에 걸쳐 영화가 상영될 것이다. 신입생들에게 서울배움터 유일의 영화동아리인 '울림'을 알리고 작품성이 있으나 구하기 힘들어 감상하기 어려운 영화를 함께 볼 기회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영화제에는 현재 극장개봉작인 '트레인스포팅'을 무삭제 완전판, 김영기 감독의 '화녀'등을 비롯한 울림에서 제작한 세편의 16mm단편영화도 선보일 예정이다. 울림회장 손경현(서양·이태리어 2)군은 90년대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다량의 영화를 접하게 된다면서 "영화를 우리의 주체적인 시각으로 다시 비판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하며 이번 영화제 역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일(목) 공각 기동대, 중오, 트레인스포팅
14일(금) 에드우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황혼에서 새벽까지
17일(월) 화녀, 황혼에서…, 트레인스포팅
18일(화) 독백, 미메시스, 시율라시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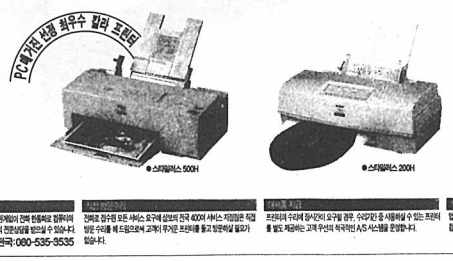


TRIGem

"PC매거진의 눈을 사로잡았다!"

美 PC매거진 선정 최우수 칼라 프린터 - 삼보 스타일러스 칼라 500H

삼보 스타일러스 칼라500H가 세계적인 PC전문지 미국의 'PC매거진'이 실시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개인용 잉크젯 프린터 부문 최고의 프린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출력속도, 선명도, 호환성, 경제성, 편리성을 비롯, 구입 후 고객지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고 정확한 비교 평가를 통해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을 보장하는 프린터로 선정된 스타일러스 칼라 500H-이제, 잉크젯 프린터도 세계가 인정한 삼보 스타일러스 칼라 프린터입니다.



PC MAGAZINE EDITORS' CHOICE

PC MAGAZINE EDITORS' CHOICE란? 세계적인 PC전문지인 PC매거진의 정확있는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최고의 제품에 부여되는 것으로 소비자는 이를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비교 상주지 One Call 서비스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구입문의에 관해없이 전화 한통화로 컴퓨터의 프린터, 컴퓨터에 관한 모든것에 대한 상보의 전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 02-365-3535 전국: 080-535-3535

전국 A/S 서비스
전국을 점수면 모든 서비스 요구에 삼보의 전국 400여 서비스 지점들은 직접 방문 수리를 해 드립니다.(서울 무거운 프린터를 들고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 지원
프린터의 수리에 장시간이 요구될 경우, 수리기간 중 사용하실 수 있는 프린터를 빌드 해줍니다.(서울에는 고객 우선의 적극적인 A/S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정기고객 우대 프로그램
업계 최초로 당사의 프린터를 구입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삼보의 '뉴잉글 회원 프린터 고객 클럽'을 발행 수 있는 무상교육 쿠폰을 드립니다.

비교상주지 할인이 가는 칼라 노트북!
삼보 스타일러스 칼라 500H 200H
- 마이크로 미하 방식의 720 DPI 초해상도(500H)
- 최대 4PPM, 칼라1.5 PPM의 고속 출력(500H)
- 1670万 True color 의 실이상의 표현
- 국내 최대의 잉크탱크로 지원한 유지비
- 헤드와 카트리지 분리로 카트리지 교체 용이
- 윈도, DOS계, 매킨토시등 접속 가능
- 한글 모토, 에드, 리모트 프로그램 지원
- 애플세이션 KS, KSSM+

삼보컴퓨터
http://www.trigem.com

산천동 철거현장을 다녀와서

"안 죽인게 다행이니 빨리 나가라"

경찰 묵인아래 깡패동원 협박 · 폭력 자행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어릴적 몇시간동안 정성들여 만든 흙집을 힘센 녀석 하나가 짓밟아 버렸을때 엉엉 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야 울음을 그치고 다시 흙집을 만들면 됐지만, 포크레인으로 철거돼버린 집을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철거민들은 포크레인에 무너지고 용역깡패들에 의해 짓밟힌 집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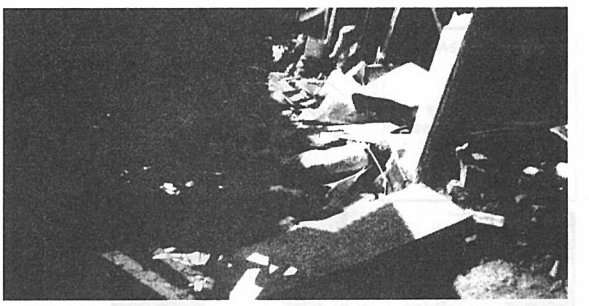
필자는 철거위험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인 용산구 산천동을 찾아갔다. 산천동은 작년 9월까지만해도 900여세대가 살던 동네였다. 그러나 작년 9월부터 재개발사업이 시작돼 현재는 30여세대만이 폐허가 된 이곳에 살고 있다. 그나마 30세대중에 16세대는 재개발조합측과 결탁한 입산산업 용역깡패들의 협박과 탄압에 못이겨 이사를 가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필자가 산천동 버스정류장에 도착했을때 이병욱(염세상인 · 공장 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이 마중나와 있었다. 정류장에서 별로 멀지 않은 동네였지만 그 동네를 한바퀴 돌아 좁은 골목길을 통해 들어가야 했다. 이병욱 위원장은 "동네 곳곳을 용역깡패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며칠전에 KBS기자도 동네에 들어왔다가 용역깡패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쫓겨났다"는 말도 덧붙였다.

어릴적 기억을 뒤로 한채 이위원장과 함께 철거대책위원회(철대위)가 있다는 한 속셈학원으로 들어갔다. 학원 안에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미 끊인듯 참고서들이 구석에 놓여 있었고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현재 산천동에는 포크레인이 3대나 들어와 살고 있는 집을 부수고 있으며, 용역깡패들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자 철대위 위원장은 "철대위에 속해있는 14세대의 사람들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깡패들이 집앞을 지키고 있거나 심지어는 바로 옆방에 깡패들이 들어와 죽치고 있기 때문이예요"라고 두려움을 토로한다. 동네 아주머니 최금옥씨는 "낮에 잃나갔다가 집에 들어와보니 집이 난장판이 돼 있더라구. 보일러의 수조를 부숴가지고 폭포처럼 물이 솟구치고 있고, 방안의 가구들이 온통 뒤엎어져 있었으니까"라고 용역깡패들에게 당한 어울함을 얘기했다. 게다가 용역깡패들은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다가 성희롱까지 한다. 또한 철대위 소속의 사람들에게는 "빨리 안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히 하고 다닌다. 동네 사람들은 용역깡패들이 집을 마음대로 부수고 욕설에 협박, 폭행까지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도 해봤다. 그러나 경찰측은 "집이 난장판이 된 건 도둑이 들어온거 아니냐? 아님, 증거가 있느냐? 사진같은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왜 계속 신고를 하느냐"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또한 "재개발사업 문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위해 동원되는 방법상의 문제는 경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 이에 박위원장은 "철거촌에 도둑이 든다는 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깡패들이 달려들어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게 만들고, 증인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가 없다고 하는건…"라고 말하고는 "사람이 죽고 나야 증거가 생기는 것이냐"며 경찰측에 울분을 토했다. 더구나 이런 일이 있는 후에 깡패들은 오히려 한 술 더 떠 "언죽은 걸 다행으로 알지 신고를 왜 하느냐"며 훨씬 더 심하게 행동한다고 한다.

재개발조합측은 이주비란 명목으로 세대주당 250만원에, 1인 당 50만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그들을 쫓아냈다. 2인 가족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철거민들에게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주고, 가수용단지를 지어 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살 집을 보장해 주어야 함은 기본적이고도 당위적인 명제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측(산천동 뿐만이 아닌)은 인간의 생존권, 기본권 마저도 무시한채 세입자(주민)들을 돈 몇푼 주고 쫓아내는 것이다. 깡패를 불러들여 협박과 폭행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말이다. 동네 주민 홍길표씨는 "우리는 여길 떠나면 살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우리에게 돈 2-3백만원 보다 지금의 삶의 터전과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철거투쟁은 이주비 몇푼 더 받자는 투쟁이 아니다. 철거투쟁은 인간의 생존권중 하나인 주거권을 보장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벼랑끝의 전쟁인 것이다.

이화진 기자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산천동 강제철거는 삶의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다. 이 사진은 용역깡패들이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모습이다.

생존권 걸고 전교조 합법화 명단공개

지부장 선거 현직교사 대거출마, 현장활동 확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달 19일(수) 전교조 교사 1차 명단공개에 이어 27일(목)에 2차로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 2차 명단공개는 김귀식(서울 중화고, 61)씨 등 1차 명단공개때와 마찬가지로 교사 1000명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1차 명단공개때 빠졌던 서울, 전북, 제주지역의 교사 명단도 공개됐다.

89년 전교조 교사 1천 7백명에 대한 대량해직이 있었던 전례에 비춰 이번 2차에 걸친 명단공개는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가장 높은 수위의 투쟁방법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전교조 합법화와 교원의 자주적 단결권 보장은 교원의 기본권이자 인권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전교조는 지난 8년간 투쟁해왔으며, 이번 기회에 꼭 전교조 합법화와 자주적 단결권을 쟁취하기 위한 최고의 투쟁방법으로 명단공개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월 27-29일에는 임기 2년의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과 지부장선거 및 임기 1년의 지회장과 대의원선거가 치뤄진다. 이번 선거에는 현직교사로는 처음으로 위원장에 출마한 김귀식(서울 중화고)씨 외에도 지부장 선거에 현직교사가 대거 출마했다. 전교조측은 이를 "이번 선거는 단순히 조합간부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투쟁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와 더불어 전교조의 실체를 넘리 알려 현장의 활동속에서 인정받고, 전교조 강령인 민족민주인간 양성과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이끄려는 전교조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28일(금) 안병영 교육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전교조의 이같은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전국 시 · 도교육감들은 관련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다. 이 방침에 따라 시 · 도교육청은 각급학교를 통해 해당교사의 전교조 가입 경위를 파악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시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작업에서 전교조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야당에서도 이 문제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지난 2월 24일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앞에서 항의시위를 가졌고, 지난 2월 22일(토)부터 28일(금)까지는 전국적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 당사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농성중에 전교조는 야당에게 89년 국회통과안(6급이하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수준으로라도 법개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병수 기자

시 론

정권 안보 위해 기밀 누출까지

지난해 말 대공수사권 강화를 빼대로 한 개정 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되자 야당과 재야단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선거시기만 되면 국민의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기 위한 조직사건이 조작되었던 불행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9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조선노동당 사건과 김대중 후보 비서출신의 국방기밀 유출사건, 95년 총선에서의 김동식 간첩사건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선거시기 집권세력의 정치공작 기도는 95년 4월 미국 국무부에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의 집권세력이 92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한국군을 위장 월북시켜 휴전선 일대에서 총격전을 계획했다는 보도로 이는 정치공작의 엄청난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안기부법 개정이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최근 들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가 망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5만명 간첩설이 우리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고 곧 이어 2월말에는 서경원 전의원 밀입북이라는 해묵은 사건이 다시 등장해서 국회에서 격돌을 벌이는가 하면, 지난 93년 안기부 개혁과 함께 신설된 국회정보위(안기부는 비록 비공개지만 정보위를 통해 예산심사를 받고 국회에 업무를 보고해왔다)로부터 안기부 관련 정보들이 유출된다며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최근 밝혀진 김기섭 전 운영차장이 업무상 취득한 기밀- 국내 주요정세, 여야 및 정부 주요인사 동향, 대기업 관련사항, 북한내부동향까지 광범한 정보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게 보고해오면서 인사와 정책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사실은 안기부가 국가안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안보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모름지기 정보는 중립성을 유지할 때만 빛이 난다. 이해관계에 따라 가공된 정보는 이미 정보가 아닌 것이다. 국가정보가 왜곡될 때는 국가정책도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정보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정보기관이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장이 미국안보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찬반의 뜻을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보의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이다. 이같은 통제장치가 필요한 것은 정보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왜곡돼 결정되면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기부법의 개정은 위에서 살펴본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그 심각함이 있다. 우선 안기부법이 개악되면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 전면화된다.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 배포에 관한 죄에 관한 안기부의 수사권이 강화되면 수사를 한다는 명목하에 국회의원의 발언(유성환 의원)등, 정치인들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정밀사찰이 이뤄질 것이 뻔하다. 이는 재야 단체와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과 인권유린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는 안기부의 정치개입을 보다 노골화시켜 안기부가 정권안보의 도구로 악용되게 할 것이며, 변호사 접견 제한, 안기부내 구금,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에 대한 시비도 재발될 것이다. 특히 정권안보차원의 조직사건 재발, 안기부의 지의적 법적용으로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안기부법개정은 국민 재산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정부의 예비비 중 안기부가 무조건 내역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70%이상이다. 국가와 국민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가 수해민의 재해지역 지원기금 등으로 쓰여지지 않고 어디에 지출하는 지도 밝히지 않는 안기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국민적 낭비이다. 게다가 정부여당에서는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효지부지 안기부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더행히도 전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등 안기부법 개악 반대 투쟁의 파고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천만 국민들, 특히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민족민주세력은 안기부법으로 상징되는 독재회귀의 반역사적 음모를 저지하여 권력의 그늘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 또다시 공작정치로 나라가 어지럽혀지는 일을 막아야한다. 독재의 칼 끝에, 무소불위의 안기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당잡히고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조국의 장래는 없는 것이다.

조경숙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동대문청년회 창립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생활속에 향기를 더해주는 - 동서식품

컴퓨터와 마주 앉아 쓰는 일기.
일기쓰는 시간마저 아끼려는 듯
두 손으로 부지런히 자판을 두드려냅니다.
이런 일기라면 남에게 들킬 일도 없고 보관하기도 쉽겠군요.

"펜은 Keyboard보다 향기롭다"

깊은 밤,
커피 한잔을 준비해 두고 하루를
돌아보듯 펼쳐드는 일기장.
하얀 일기장을 한줄 한줄 채워가는
동안 방안 가득 커피향이 퍼지고
그렇게 하루가 마감되어 갑니다.
문득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싶을 때 빛바랜 일기장을 꺼내들고
한장 한장 넘겨보는 느낌은 분명,커피 한잔없이 컴퓨터에
써내려간 일기와는 다를 테지요.

한잔의 커피로 충만해지는 생활, 동서식품이 가꿔갑니다.

향기로운 생활문화를 동서식품이 이끌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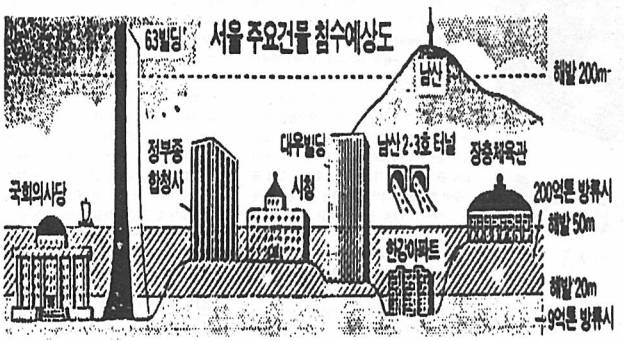
●동서 커피문화상 ●「맥심배」 생활체육 전국스키대회
●동서음악제 ●동서 장학회 설립, 운영
●국군 부대 지매 결연

동서식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선전 의혹사건 - 87년 대선

금강산 댐과 KAL기 폭파, 그리고 노태우

평화의 댐, 저금통 털어 만든 낭비의 바벨탑



이 사진은 금강산댐이 폭파됨으로 인해 서울시가 물에 잠긴 것을 가상하여 그린 것이다.
이것은 86년 전두환정권이 반북 이데올로기를 조성하여 노태우로의 정권 인수인계를 하기위한 이용도구중 하나였다.

글싣는 순서

1. 87년 대선-금강산 댐과 KAL기 폭파 의혹
2. 92년 대선 - 줄을 잇는 간첩사건 의혹
3. 문민 정부에서도 유효한 대북관련 의혹

87년 6월 항쟁은 전두환 독재 정권으로부터 6.29 선언을 받아내었으며 대통령직선제 시행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처음 치러지는 대통령직선제에 국민은 많은 관심을 보였고 여당후보인 노태우씨에 비해 민주화 열기에 의해 김대중후보, 김영삼후보 등 그당시 진보, 민주인사로 알려진 후보들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어 당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국내 정세와는 달리 87년 12.16대선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노태우씨가 승리하게 된다.

주목할 것은 노태우씨의 당선 앞에 금강산댐·평화의 댐 사건과 김현희 KAL기 폭파라는 온 나라가 북한에 대한 불안에 떨었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두 사건 모두 정부에서는 북한이 남한에서 열릴 88서울올림픽을 '물폭탄'과 '비행기 폭발'로 인한 민간인의 목숨을 빌미로 방해하고자 저지른 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계가 서서히 화해무드로 돌아서고 있었고 북한은 올림픽 공동개최를 주장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도 북한이 남한에 테러를 감행해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과 맞물려 노태우씨의 대통령 당선과 88올림픽 남한 단독개최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는 의혹을 남기게 되었다.

이에 이번호에서 금강산댐과 KAL기 폭파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의혹을 국내외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추적해 보았다.

편집자

'최대 2백억톤의 물을 일시에 방류하여 수공작전을 전개한다면, 핵무기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86년 11월 6일 이기백 당시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2년도 채 되지 않아 87년 8월 5일 박준병 당시 여당인 민정당 사무총장이 "금강산댐이 서울올림픽에 위협을 줄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측의 위협 가능성에 맞춰 진행하는 우리측의 평화의 댐 공사도 현재로서는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월간 조선 88년 10월호는 평화의 댐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나 △86년 당시 당국의 발표가 잘못된 것이나 아닌가 △북한의 금강산댐이 과연 2백억톤의 물을 담을 수가 있는가 △평화의 댐은 재대로 세워진 것인가, 혹시나 돈만 낭비한 것은 아닌가 등이다.

86년 10월은 직선제개헌·민주화를 둘러싸고 전두환 정권과 야당, 재야, 학생집단 사이의 대결이 첨예화 되고 있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댐 건설 운운하는 것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정권안정·유지의 일환으로 쓰이고 있는 대북공작이라할 수 있다(말 92년 12월).

86년 당시 당국의 발표를 살펴보자. 이규호 건설의 발표시기는 그렇다치더라도, 그 후 잇달아 나온 이기백 국방(11월 6일), 이웅희 문공(11월 21일), 4부장관 합동(허문도 통일 포함, 11월 26일)의 성명·담화문엔 한결같이 '수공'이란 용어가 나타난다.

'2백억 톤의 물폭탄'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첫째로 금강산댐에 2백억톤의 '물폭탄'이 만들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둘째로 설사 서울을 물에 잠기게 하더라도, 86년 당시 발표했던 것처럼 서울이 50미터 물깊이로 침수되지는 않는다.

셋째로 댐건설과 담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88올림픽을 치르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은 다음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2백억톤의 담수 능력을 갖춘 댐을 금강산지역에 건설하려면 하루 20톤 트럭 1천 대씩이 동원돼 흙을 나르더라도 13년이 걸려야 할 공사이며 우리 정부가 '지정해준' 지역에 댐을 쌓으려면 공사기간 동안 물길을 돌려놓을 임시 배수로 및 공사 도로를 먼저 건설해야 하는데 그만큼 공사기간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공사가 끝난 후로부터 14년이 경과해야 2백억톤의 4분의 3인 150억 톤을 채울 수 있다고 하니 88년 올림픽 교란, 수공임박 보도의 진위는 논의할 바도 되지 못한다'(이윤수, 말 92년 12월).

또 하나 50미터의 물기둥이 나오게 된 계산 경위를 살펴보자.

월간 조선은 미국의 B그룹 I엔지니어링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댐이 파괴될 때 중첩될 자연홍수를 '2백년 빈도홍수'로 잡고 거기에다 1.2를 곱한 수치를 토대로 한 것이다.

따라서 50미터의 물기둥은 86년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려고 부풀렸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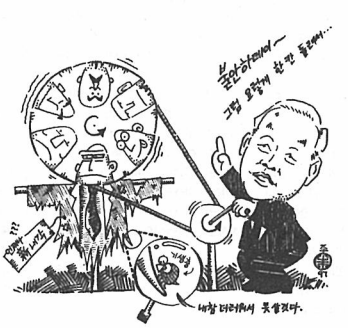
그렇다면 국민의 성금 707억원까지 걷어 이 댐을 만들 필요는 있었을까? 이에 워싱턴 포스트(8월 1일)는 '북한이 올림픽 이전에 금강산댐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고 있으며 물폭탄의 위협도 없는데 서울 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른다는 명목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 평화의 댐 건설하고 있다며 이는 불신과 냉비의 사상 최대의 기념비적 공사'라고 빗대어 말했다.

실제로 그 이후 북한 금강산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부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외신에 의하면 북한에선 그런 공사가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평화의 댐만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다고 해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만 셈이었다(말 92년 12월).

허윤숙기자

외 대 만 평



1987년 11월 29일 오후 2시 1분에 KAL 858기가 폭파되었다. 그 안에는 해외건설노동자 11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유해는 커녕 비행기의 파편조차 찾아내지 못하였다. KAL기의 폭파범은 김현희라는 북한공작원으로 바그다드 공항에서 리디오 시한 폭탄과 술로 가장한 폭발물을 소지하고 KAL기에 탑승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 공항에서 기내에 폭발물을 두고 내렸고 마침내 비행기가 폭발하였다고 한다. 12월 15일(대통령 선거 전날) 김현희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수사기관에 인도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88년 1월 15일(88올림픽 참가국 신청 최종 마감 이틀전) 자신이 북한의 공작원이며 KAL기를 폭파했다고 자백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경과는 오로지 이 범인의 증언만을 증거로 했을 뿐이었다.

파편하나 없이 김현희 자백만으로 정리된 KAL기 폭파사건

그러나 김현희의 기자회견 이후 각처에서 이 사건이 조작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상업한 경계속에서의 폭탄장치의 가능성이다. 일본의 한 항공회사 사원의 말을 들어보자. "바그다드는 이란·이라크전 관계로 손짐의 기내반입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기로 유명합니다. 더욱이 '마유미'는 같아타는 여객이었습니다. '같아타는 여객의 짐은 특히 주의하라'는 것이 항공테러 방지 대책의 요체입니다. 이로보아 '여기서만 특별히 개인물건을 검열하는가'는 항의에 항공측이 간단히 물러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아사히 신문 88년 1월 15일) 또한 일본의 주간지 산케이는 2월 4일자에서 항공사 직원은 승객이 내리면 반드시 두고 간 물건이 있나 하고 좌석 위의 선반을 살펴 보는 것이 상식이라는 일본 여객기 승무원의 말을 빌며 KAL기 승무원이 김현희 일행이 두고 내린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KAL기에는 항상 2명의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세계에서 비행기납치가 제일 힘든 비행기라고 정평이나 있다고 한다.

또한 KAL 858기가 폭파됐는데도 그 잔해와 사망자의 유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현희가 진술한 두부 한모정도의 콤포지션 C4 폭약 350g과 약주병 한병정도 분량의 PLX 700cc의 액체폭약으로 길이 41미터, 날개 40미터의 거대한 보잉 707기를 순식간에 폭파할 수 없다고 한다. 일본의 군사평론가 오가와 가주히사는 "이 두 폭탄으로는 기내 좌석위의 쥬라루민판에 직경 1에서 2미터의 구멍이 뚫어질 정도"라고 한다(주간 산케이 2. 4.). 또한 이러한 작은 폭발물에 의한 폭발인데도 사고발생 긴급발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폭발할 수는 없다고 한다. 더 믿기지 않는 것은 아무런 발신도 없이 순식간에 폭발한 기체의 다른 조각들과 유해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멀쩡한 구명보트와 약간 손상된 구급 약품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혹은 바로 김현희의 존재이다. 정부에서는 물적 증거 없이 단순히 김현희의 자백으로 김현희가 북한인인 공작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현희의 자필 이라고 하는 맹세문(테러를 계획하며 북한을 떠날 때 김정일 앞에서 읽었다는)에 대한 각 언론사의 표기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김현희 외 신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88년 1월 15일 자에 실린 '맹세문'에는 '3대혁명규률'를 남한식으로 '불'을 '을'이라고 쓰고 있었는데 다음날 16일 자의 조선일보, 한국일보, 연합통신에는 '을'이 '불'로 고쳐져 있는 것이다. 또한 사건 발표전 김현희의 훈련으로 단련된 몸의 근육과 팔자국에 대한 보도가 달라진 점이라든가 김현희의 한국행 이송결정 당시 우리말로 "내가 왜 한국에 가야하느냐?"고 울부짖었다는 보도(조선일보 87년 12월 16일)가 대통령 선거가 끝난 19일 정정되었다는 것도 들 수 있다. 또 조선일보 1월 18일자의 '만물상'에 김현희가 기자회견을 할 때 서을 표준어로 말했다고 할 정도로 김현희의 말투는 북한 사람 같지 않다는 것도 들 수 있다.

허윤숙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전문가가 삼성생명을 움직인다

"남북통일 후 가장 필요한 보험이
무엇일지 새 보험상품을 개발하시오"

**삼성생명의 상품개발전문가들이 그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있게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전문가,
삼성생명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단순히 국내 제 1의 보험회사가 아닌, 종합금융회사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이유 역시 이러한 전문가들의 힘에 있습니다.
0.01%의 이율에 도전하는 Fund Manager, 보험계약을 심사하는 Underwriter,
적정보험요율 산정을 통해 결산손익을 관리하는 계리전문인력과
부동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삼성생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금융서비스까지, 생활의 구석구석에 함께하는 전문가의 손길,
21세기 종합금융회사 삼성생명이 함께 합니다.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큰 시리즈 -② 한달에 100만원이 누구 애 이름인가

인상만을 고집하는 등록금 · 물가 … 부모님은 절망한다

얼마전,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TV 저녁 뉴스에서는 빚 600만원을 갖지 못해 비관자살한 어느 봉어빵 장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돈 600만원과 비관자살이라…

이년 남짓 되었을까? 담시 언니와 내가 세들어 살던 자취집 주인가족이 우리의 전세금 900만원을 떼어먹고 집을 담보로 잡혀둔채 도망을 간 적이 있었다. 900만원이라는 돈을 잃고 애를 태우며 여러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걸까' 라며 엄청난 비관에 휩싸이는 일밖에 할수 있는것이 없었다. 초등학교 교사월급으로 객지에 내보낸 두 명의 대학생, 한 명의 고등학생, 또 그 밑에 두 명의 중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대기란 여간한 일이 아닐텐데 엊친데 덮친격으로 이런 몹쓸 일까지 당할까 하는…

올해는 우리 학교 등록금이 6.95%정도 올랐다고 한다. 처음에는 어, 웬일로 이 정도밖에 안 올랐지하며 안심했었다. 예년에는 늘 15-20% 수준으로 등록금이 인상되어 왔기 때문에 매년 3월마다 우리가 등록금투쟁이라는 걸 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우습게 생각되는 것은 우선, 올해는 김영삼 대통령이 모든 대학은 등록금을 5%수준으로만 올리라고 했다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왜 6.95%나 올랐을까, 말이 좋아 6.95%지 솔직히 7%나 마찬가지 아닌가. 또, 5%건 6.95%건 올해도 또 등록금이 오른건 것이 아닌가. 왜 등록금은 꼭 올리야만 하는 건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작년 수준 그대로 두고, 재단에서 당연히 내야한다는 재단전입금을 확실하게 학교가 확보를 하고, 국가에서도 백년지대계인 나라의 교육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을 더 늘린다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은 더 이상 올라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자취 생활을 하며 학교를 다니는 나의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한 학기에 등록금을 최소한 180만원을 낸다고 할 때, 한 학기가 보통 네 달이니까 한 달에 등록금은 45만원을 내는 것이다. 여기에 월세방의 방값 30만원을 더하고, 아침은 잘 챙겨먹지 못하니 하루 두끼로 밥값 5천원을 잡으면 한달에 15만원, 거기에 주인집에 따로 내는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등을 더하면 약 2만 5천원이다. 게다가 서적비에 한겨레21, 씨네21등의 주간지만 가끔 사서 보더라도 3만원은 족히 든다. 또 대학교 3년 정도의 짠밥이니까(선배들을 만났을 때와 경우가 좀 다르겠지만) 후배들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것까지 더하면?

따라서 영화를 본다든가 하는 사치스러운(?) 문화생활과 옷을 사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시켜도, 한 달에 100만원정도는 우습게 쓴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 우리 아버지의 한달 월급은 얼마였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은 몇이었던가. 지금 이 순간처럼 내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죄송스럽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예전에 어디선가 본 자료의 통계가 기억난다. 그 통계의 내용은 우리나라 1년 예산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국방비,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로 나가는 약 2조 5천억원의 돈이면, 의료보험을 했을 때 전국민에게 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도 돈이 남게 된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을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미국 군인들에게는 갖다 바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값비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연초부터, 경제계와 정치권을 휩쓸고 간 한보비리에 김현철과 김영삼대통령이 깊게 개입됐다느니, 주체사상은 이제 사망했으니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북에서는 살 수 없어 망명을 했다느니 말도 많고 일도 많았다. 그러나 정작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던가. 한보비리, 대통령의 대선자금문제로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한번 좌절하고, 굶주림에 못 견뎌한다는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언론 보도에 때로는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지만, 이땅에서 힘들게 자녀를 교육시키며 아껴아껴 생활하시려는 부모님들의 최고 고민은 바로 생활의 문제인 것이다. 빚 갚을 돈 600만원이 없어 비관자살을 할 수 밖에 없고, 임금과 근로시간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민중들의 삶에다. 불경기에 세배돈 받기도 죄송스럽고 아르바이트 안 하나는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요구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며, 때로는 읽고 싶은 책을 보고도 선뜻 손을 내어 뻗을 수 없는 이 땅의 대학생들의 생활을 우리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김 지 현(동양 · 일본3)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글싣는 순서

1. 정부의 등록금 인상률 5% 억제 방침 — 숨은 뜻 찾기
2. **한달에 100만원이 누구 애이름인가**
3. 국가보조금, 이렇게 확충하자
4. 학교법인, 네게도 책임이 많아
5. 한총련, 이렇게 뭉친다

작은 시리즈 -② 학생회비 분리징수

학생회 고사 의도한 자금 차단

정권 재창출, 의견표출통로 봉쇄 목적

지난 2월 발표한 교육부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학생지도 부분에서 '학생회비 분리징수 및 관리철저' 항목에 따라 많은 학교가 97년도 1학기 등록금에서 학생회비를 분리고지 징수했다.

분리징수란 등록금을 고지할 때 고지서에서 학생회비를 따로 빼내어 발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처럼 학생회비로 등록금의 다른 항목들(수업료나 기성회비 등)과 함께 고지서에 표기돼 있을 때와 달리, 학생회 비납부여부를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이 되어 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표면상으로는 학생들의 자유선택이지만 사실은 비싼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과 한 푼이라도 적게 내고픈 심리를 이용한 대학당국과 정부의 '술책'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 총학생회는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명지대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다. 대학당국이 일방적으로 등록금고지를 했고 학생회비 분리징수의 과정도 그 속에서 이루어졌다. 학생회비 명목의 만원만을 따로 절취할 수 있게 고지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 서울여대는 이에 학생회비 자체를 걷지 못한 경우다. 즉 등록금 고지서에 '학생회비'라는 항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총학생회 불인정과도 맞물리는 문제로, 대학당국이 올 선거기간 동안 사전공고 없이 학칙(학생회 간부자격 성적 조항 평점 2.0에서 2.7로)을 강화하는 바람에 현 서울여대 총학생회장의 자격이 박탈될 지경에 이르렀다.

총학생회 불인정과 관련한 학생회비 문제가 발생한 것은 덕성여대도 마찬가지다.

덕성여대는 예년엔 학교에서 학생회비를 관리하고 학생회 측에서 지급받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접수한 계산서의 금액에 반도 못 미치는 금액만을 지급하는 등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는 있었다. 그러다 올해 학생회 선거 재투표과정에서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현재는 총학생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학생회에서는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학교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비단 한 학교나 학생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에 의해 조직되고 그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모든 학생들의 대표조직이다. 이러한 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을 볼 때 가장 큰 자금줄인 학생회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는 명확하다. 학원의 3주체(교수 · 학생 · 직원) 중에서도 가장 주동적인 학생의 의견이 표출되는 통로를 봉쇄하고, 소규모의 행사까지도 원천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학생회와 학생들간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도이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재단도 학원을 자신의 뜻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 민주남부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투쟁으로 정면돌파를 꾀하고 있다.

김보영 기자

글 싣는 순서

1. 새내기 새로 배움터 불허
2. **학생회비 분리징수**
3. 학생회 불인정
4. 학생회 간부 자격 강화
5. 학내 수익 사업 금지
6. 학내 언론 검열 강화
7. 요약 및 결론

못된 어머니

O… 옛날에 이문이와 왕산이가 살았다. 이문이가 속초로 놀러갔는데, 깜빡 잊고 식비와 차비를 안 받아갔다. 그 다음날 왕산이가 수안보로 놀러갔다. 그런데, 왕산이가 돈이 없어 엄마한테 "차비랑 식비 좀 주세요"라고 하니 엄마가 막 짜증을 내며 "이문이는 안 받아갔는데 넌 왜 달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왕산이가, "이문이가 잊어버리고 그냥 갔으면 가르쳐줘야지,왜 보고만 있으세요? 계다가 저한테까지 까먹으라고 강요하시는군요."

〈일〉

O… '한국외국어고등학교' 직원인 흡동이는 어느날 한국외고 재단의 수익업체인 쟁반국수집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나 흡동이는 지금 직장을 그만두면 집에 있는 처 · 자식을 먹여 살릴 길이 없어 이 억울함을 혼자 달래고 있었으나 도저히 이 괴로움을 참을 수 없어 이를 크로니클자에게 알렸다. 크로니클자 이를 알아본 즉 학교의 진짜 주인이라 자칭하는 이사장이 직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규약이 있다고 하더라. 이때 직원들 나서

"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달라!!"

〈희〉

O… 한 잡지의 상가분양 광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기에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1. 기본적으로 7300의 고정 소비자를 확보
2.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어지므로 매 학기마다 보수 가능
3. 전국 대학 중 유례없는 캠퍼스 내 수익 상가

최고의 시설! 최고의 수익!
외대 제 2 교수연구동...
기타 문의 사항은 (961-재단재단)으로....

〈훈〉

O… 복재인간 탄생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와 관련한 엄청난 비밀이 우리 나라에 숨겨져 있다는데... 크로니클자 알아본 즉, 전두환이 민주화 투쟁으로 장기집권이 어렵게 되자 미국 CIA의 협조를 얻어 전두환 버전업 Ⅰ Ⅱ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온 것. 그 결과 인기부를 위시해 민중을 짓밟는 폭압성 유지달성과 기능이 두 배로 향상된 YS에 외서는 절정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씨의 업적에 감명받은 김씨도 자신의 버전업 씨리즈를 준비한다는데... 이에 크로니클자 왈 "누구 YS 좀 말려줘요!"

〈영〉

O… 못생기고 인간성이 무지 더러운 Mr.깔짝이가 이랬마을 구린도사를 만났다.

너의 물이 더러우냐.
네, 엄청
속살도 썩어 문드러졌으렷다.
네 무지무지.
허허허 그러면 옷을 한번 갈아입어 보아라

〈정〉

개각에 관한 단상

비둘기 칠판

이문벌

□ 모집합니다

• 제18기 전기 신입회원 선발
응시 언어:외대에 개설된 모든 언어
응시 자격:외대인이면 모두,단 97년 하반기 졸업 예정자는 제외
응시원서 배부 및 접수처:외대 통역 협회(학생회관 203호)
기간:97년 3.10(월)-18(화)
응시원서비:3000원
시험날:3.18(화)
문의처:968-6377.961-4169.963-6883
〈외대 통역 협회〉

• 97학번 새내기 중 새로 배움터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참석치 못한 학우들은 소속 단대로 접수를 받습니다.
장소:해담 단과대
일시:3.10(월)-15(토)
〈31대 총학생회〉

• 미네르바 세미나[이문열을 읽는다] 첫번째 이야기:젊은날의 초상
일시:13(목) 오후 6시
장소:노천 지하
대상:외대인 누구나
〈문화비평 미네르바〉

• 경문고 개강 동문회 합니다.
14(금) 5시에 상징탑에서 봐요
〈경문고 동문회〉

□ 축하합니다

• 박이진(정책 · 신방 2)양의 3.11(화)생일을 축하하고 좀더 마음으로 가까운 서로를 바라며
〈동문 선배〉

□ 환영합니다

• 작은 실천을 소중히 하는 터어키어과 노래패 터울림이 되신 97새내기 여러분 앞으로 잘해봅시다.
〈터어키어 노래패 터울림〉

• 부천고 출신 97새내기 여러분 외대합격을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동문회는 추후에 공고하겠습니다.
〈부천고 동문회〉

• 강철 터어키어과가 드디어 3. 14(금)에 정기총회 및 신구대면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많은 학우의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특히 97새내기 여러분이 주인공이어요.
〈터어키어과 학생회〉

왕산골

• ACE 개강총회
일시:3.10(월) 늦은 6시40분
장소:동아리방

□ 모집합니다

• 기록문학회 '97 신입회원 모집
일정:97.3.3(월)-14(금)
장소:학생회관 419호
전화:4417
〈진실을 찾는 프리랜서 모임 외대 기록 문학회〉

• 개강총회
누가:참동이 사랑회
언제:3.13(목) 6시
장소:동아리방
회비:5000원

• 신입부원 모집
97년도 15기 아구부원을 모집합니다
대상:기록원(여)선수(남)
학생회관 309호 전화 4411
〈유니온〉

□ 축하합니다

• 늦었지만 남강고, 미림여고를 졸업하신 97학번 새내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3월달 모임에서 만나요~
〈미림 · 남강 동문회〉

• CBA개강예배 환영해요.
97. 3. 12(수) 늦은 6시 공대 303호

•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교산으로 만나보세요.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일시: 3월말까지
장소: 학생회관 316호
〈HAM, 아마추어 무선 통신반〉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과 학생회 선거 시행

거의 90%를 넘는 찬성율로 당선

지난 학기 과학생회장이 확정나지 않은 과에서 학생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한국어교육과와 행정학과 베어과가 학생회장선거를 지난주 치렀으며 일본어과 학생회장 선거는 공고된 상태이다.

▲ 한국어 교육과 고운일(3)
지난 7일(금) 선거
재적인원 : 122명
투표인원 : 83명
찬 성 : 82명
반 대 : 1명
찬 성 률 : 99%

▲ 베트남어과 권상형(3)
지난 6일(목) 선거
재적인원 : 116명
투표인원 : 88명
찬 성 : 87명
무 효 : 1명
찬 성 률 : 99%

▲ 행정학과 최주용(3)
지난 7일 선거
재적인원 : 144명
투표인원 : 97명
찬 성 : 89명 반 대 : 4명
무 효 : 4명
찬 성 률 : 91.7%

일본어과 학생회장 선거 공고돼

오는 12일(수)부터 선거유세, 17일(월) 선거일

일본어과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어과 학생회장 선거 일정을 발표했다. 오는 11일(화)까지 후보 추천 및 공고를 하고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선거 유세를 가진다. 선거일은 오는 17일(월) 붉은 과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선거를 치르게 된다.

후보 추천 및 공고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선거유세:12일부터 14일
투표일:17일
장소:붉은 광장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정권폭력에 희생된 철거민 민병길씨 동생 병삼씨 '노어 87학번'를 만나

이 사 람

"진정한 자주민주국가는 인권존중이 되어야 한다"

"실감이 안 난다. 재학생 시절 추모의 대상이었던 '열사'라는 단어가 형 이름앞에 붙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며 민병삼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힘겨워하는 어린 조카를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민병삼씨는 지난 2월 2일 구갈철거민 대책위원회 조직부장으로 노점단속으로 빼앗긴 손수레를 되찾기 위해 함의 방문차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의 살인적 폭력 행위로 인해 지난 14일 숨진 민병길씨 동생이다.우리 학교 87학번 선배이기도 한 그는" 나 역시 87년 당시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 투쟁했고 그로인해 탄생한 문민 사회라는 이땅에서 그것도 백주대낮에 민중의 지팡이란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현 정권의 폭력성에 대해 분노을 토로했다. 민병삼씨는 아직도 형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왜 민병길씨가 거기에 갔으며, 어떻게 죽었는지 사건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한편 "진정한 자주적 민주국가 건설은 정치 경제의 발전보다는 사람의 소중함, 인권 존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외대 97새내기들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깊은 애정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우리학교 선배로서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그동안 민병길 열사 진상규명에 대한 선전전과 이번 보궐 선거에서 보인 정권 타도의 국민정서에 민병삼씨는 큰 만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젠 우리 청년 학생들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쁘며 말만이 아닌 체계적인 열사계승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형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옆에 계신 어머니를 위로하며 그는 "아주대학병원 영안실 이곳에는 형만이 아니라 이땅의 민주화를 바라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있다"라며 선웃음을 지었다.

함철우 기자

용인배움터 새내기 새로배움터 다녀와

약 2,700여명의 새내기 참가

용인 배움터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지난 5일(수)부터 7일(금)까지 2박3일간 수안보 와이키키 관광호텔, 사조마을, 한일호텔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우리 땀으로 일구어온 왕산, 이제 7천의 사람 사람으로 세상을 수놓읍시다'란 주제로 열렸다.

새터에 다녀온 장해근(동구·플라드 2)군은 "총학생회에서 공연 준비를 많이한것 같다. 공연은 대체적으로 흥미로웠으나 너무 일정이 많아 마지막날 밤을 제외하고는 새내기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이번 새터와 관련해 총학생회는 대학당국의 일방적인 간섭으로 준비 과정이 순조롭지 못 했으나 4일(화)밤 대학당국이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사 진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이번 새터에는 약 27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중앙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웠고 새내기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일정을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외대의 주인은 바로 나 지난 3일(월)에 97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앞배움터에서 열렸다. 이제 막 외대인이 되는 새내기들의 모습에서 외대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함철우 기자

태국어과 정기총회 개최

새내기 공연과 학년별인사

태국어과 정기총회가 지난 7일(금) 대학원 210호실에서 열렸다.

이 날 총회에서는 △개회사 △과회장인사 △각 부장 인사말 △새내기 장기자랑 △각 학년 인사 △고사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는 신구대면식을 겸한 총회의 자리로 안전 처리는 없었다. 태국어과 학생회장 김세윤(3)군은 "올해 학생회 활동이 상당히 힘이 든다. 그러나 올바른 학생회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총회 인사말을 대신했다.

서울 총학, 새터 비참가자에 새터대금 환불

오는 16일(토)까지 해당 단과대 학생회실로 신청

서울 배움터 총학생회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에 참가비용을 납부했으나 참가하지 못한 새내기들을 위해 대금 환불을 실시한다. 오는 15일(토)까지 소속 단과대 학생회실로 신청을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총학생회장 이원복(사범·영교4)군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환불이 가능하므로 새터 비용을 지급하고 새터를 안 간 97학번들이 많이 신청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단신

어문학관 계곡 휴식년제 시행

총무처 출입증 발급받아야 출입가능

용인 배움터 어문학관 계곡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 1997년 3월 1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어문학관 계곡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천혜의 자연속에 위치해 있는 용인 배움터의 명소 중 명수당 및 어문학관 계곡은 학내 구성원 모두가 즐겨찾는 장소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어문학관 계곡은 계절이 바뀔때 마다 인적이 끊이지 않아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학당국은 어문학관 계곡의 휴식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별한 출입이 필요한 경우 15일 전에 출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총무처장의 허락을 받은 후 출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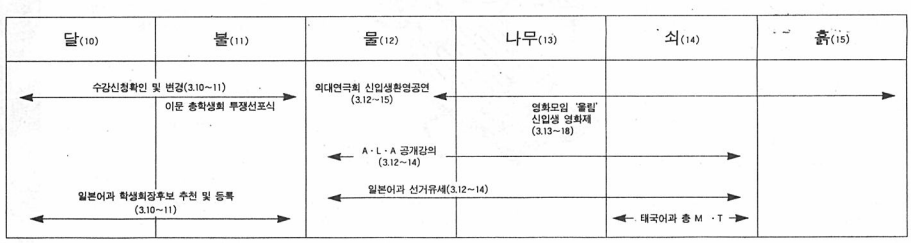
생활협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우리 학교 용인 배움터 생활협동조합에서는 97년 회계연도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을 하고 있다.

제 34조 단위 대의원 선출, 제 35조 단위위원회, 제 6조 대의원 선출에 근거하여 선출한다.

대상은 조합원에 제한한다. 조건으로는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아래 왕산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는다는 것이다.

2월 24일(월) 2차 임시이사회에서 단위위원회에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을 위임하였으며 각 단위에서 추천한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해 차기 임시 2차 이사회에서 자격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97 신임교수 소개

성경준 전임강사
영어과〈영어영문학〉

이재협 전임강사
영어과〈미국학〉

이성하 전임강사
영어과〈언어학〉

유형구 부교수
중국어과〈동아학〉

김유경 조교수
신방과〈커뮤니케이션〉

김동훈 부교수
법학과〈법학〉

이광은 조교수
무역학과〈법학〉

정인석 전임강사
경제학과〈경제학〉

박명호 조교수
경제학과〈경제학〉

전성률 조교수
경영학과〈경영학〉

양혜란 조교수
한국어교육과〈고전문학〉

박정오 전임강사
루마니아어과〈루마니아문학〉

권혁재 전임강사
유고어과〈슬라브어문학〉

이근명 전임강사
사학과〈동양사학〉

김응수 전임강사
환경학과〈미생물학〉

조상영 전임강사
컴퓨터공학과〈컴퓨터공학〉

김희동 조교수
정보통신과〈통신공학〉

윤일동 전임강사
제어계측과〈제어계측공학〉

한치문 부교수
전자공학과〈제어계측공학〉

최경일 조교수
산업공학과〈산업공학〉

보직이동교수 소개

심재일 교수
〈통역대학원장〉

하영명 교수
〈세계경영대학원장겸 경영정보대학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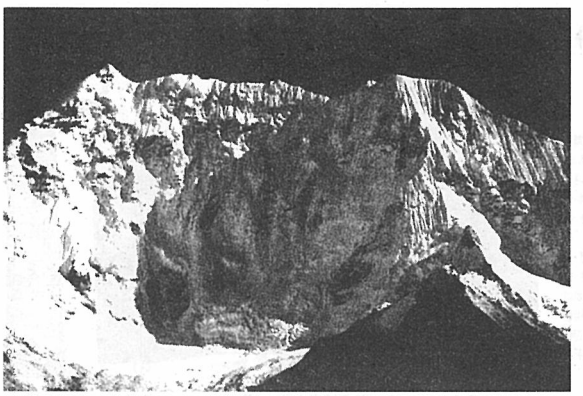
정진석 교수
〈사회과학대학장겸 정책과학대학원장〉

김원식 교수
〈인문대학장〉

이의찬 교수
〈자연과학대학장〉

박종영 교수
〈도서관장(서울)〉

이은순 교수
〈도서관장(용인)〉



이 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악회 'HUFSAC'의 아마다블람 등정기를 담은 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아마다블람은 네팔왕국의 쿰부히말라야 사가르마타 산군에 속해 있는 산을 일컬른다. 경북대산악회와 합동으로 아마다블람을 등정했으며 작년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24일간의 원정을 통해 2명의 등정자(홍창희, 범원택)를 낳았다.

12월 6일(금)

침낭하나로 둘이 사용했으니 밤새 추위에 떠는 것도 담연했다. 바람도 세상이 마지막인냥 미친 듯 불어대는데 정말 텐트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할 정도였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셀파들이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른다. 시계를 보니 3시반, 용용형을 깨우고 다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어제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 빈속에 라면 하나를 채워 넣고 장비를 착용했다. 여섯시가 되어 드디어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가지 셀파와 젤젠 셀파가 로프를 설치하며 앞서간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힘이 빠져 눈속에서 하우적대는데 바람은 여전히 무섭게 불어댄다. 계속 반복되는 오름짓이 계속되었을까 앞서가던 가지 셀파가 멈춰서서 날 불른다. 그가 있는 곳까지 가자 그가 내손을 잡고 걷는다. 맙소사! 십여미터 전방이 정상이다. 11시 40분 난 가지 셀파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더이상 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날 행복하게 한다. 저 멀리 거대한 사가르마타와 로체가 까맣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그곳에 더 머무르고 싶었는데 가지가 하산을 재촉한다. 하는 수 없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경북대의 동신형과 곽십형이 거친 숨소리와 함께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계속해서 랩사꿀 산장의 고영국 아저씨와 용용이형 모두들 그렇게 오르고 있었다. 캠프 3에 도착해서 좀 쉬나 싶었는데 2차 공격조가 모두 7명 올라온다고 해서 캠프 2로 하산을 시작했다. 내려가는 도중 만난 창희형, 민구형, 주완형이 내 등정을 축하해 준다. 나도 함들의 등정을 기뻐하며 오르는 것만큼이나 힘든 캠프 2로의 귀환을 재촉했다.

12월 7일(토)

바람은 계속 미친 듯이 불어댔다. 무게 때문에 침낭을 사람 수 보다 적게 가져온 우리들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만 했다. 성환형님이 준비해 주신 야채죽으로 아침을 때우고 등반준비를 하는데, 칼칼하고 매콤한 바람으로 인해 바깥에서 준비할 엄두가 나지 않아, 좁은 텐트안에서 3명이 장비를 착용하려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먼저 바깥에 나온 용용형 독촉에 모두들 허둥거린다.

6시 10분 캠프를 출발했는데 시작부분부터 60-70도의 가파른 설벽으로 만만치가 않다. 처음의 100미터 정도는 피켈을 사용해 올랐고 고정로프가 설치된 부분부터는 피켈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과감히 놓고 가기로 했다.

경북대가 먼저 출발하고 용용형과 나, 밑에 주완과 민구가 따라 붙었다. 눈은 크러스트가 잘 되어 있었고 1차 등정조의 발자국도 선명했지만, 많은 인원이 올라가다가 다시 그길로 내려와서인지 스탭이 쉽게 부서져 버려 오르는데 무척 힘이 든다.

정상을 300-400미터정도 남겨 놓았을까, 앞쪽에서 지체되는 바람에 한시간 여를 거의 전진하기 못하고 매달려 있던 용용형이 나를 불러 내 곁에 있던 주완이와 민구를 하산시킬 정도로 나빠 보이지도 않아 용용형께 재고해 주시길부탁했다. 하지만 형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의 체력과 시간을 생각해야 한다며 계속 하산시킬 것을 종용하신다. 내 입장에선 어떻게든 우리 회원이 한명이라도 더 정상을 갔으면 하는 욕심과, 주완이와 민구의 등정에 대한 의욕을 알기 때문에 같이 가려했지만 용용형은 막무가내 요지부동이다.

일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했지만, 선배된 입장에서 후배들에게는 내려가라하고 나 혼자선 정상에 갈 수는 없어서 용용형께 차라리 내가 내려갈테니 주완이와 민구를 올리자고 했더니 주완이와 민구는 체력이 딸려 안된다고 하신다. 차마 내려가라는 말이 필어지지 않아 용용형이 불러도 못 들은 척 몇번을 버텼지만 끝내 "너 그러다 애들 죽인다"는 말에 승복할 수 밖에 없었다.

하산을 지시할 때의 주완이와 민구의 섭섭함과 실망스러움을 그들의 표정에서 환히 읽을 수 있었다. 난들 그 심정을 모르겠는가!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주완이와 민구는 내 지시에 잘 따라 주어 내가 더 큰 부담감을 가지지 않게 해주었다. 11시 20분경 경북대의 경수와 용용형이 정상에 섰고 창진이는 정상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하산을 시작했다. 정상을 70-80미터 남겨두고 있던 내 눈앞에도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왜 그렇게 부럽던지.... 경수와 용용형에게 30분의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형은 정상 50-60미터 밑에서 기다리시겠단다.

숨이 턱까지 차왔다. 얼마를 그렇게 올랐을까 고정로프가 팽팽해지며 눈앞에 스노우바가 보였다. 시야가 트였다. 멀리 로체와 에베레스트가 보였다. 13시경이었다. 정점까지 올라가야 할지를 놓고 한참을 망설였지만 여기가 정상이라 생각하고 그냥 내려가기로 했다. 정상에 대한 어떠한 성취욕이나 기쁨도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빨리 내려가 쉬고 싶다는 생각만이 내 머리를 지배했다.

고정로프에 카라비너를 통과시키고는 구르다시피하며 정상지전의 설벽지대를 내려왔다. 피로함과 허무감 그리고 갈자기 들기 시작한 불안감으로 다시 조심조심 하산을 했다. 웬만하면 통과만 시킬 곳도 하강기를 이용해 하강을 하면서, C3까지 내려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C3에 도착해 짐을 챙기고 대기하고 있던 용용형, 주완, 민구, 창진, 경수와 둘기둣 서둘러 하산을 시작했지만 모두들 너무 지쳐 있어 C2에 도착하니 저녁 6시가 넘어 있었다. 허기를 라면으로 때우고 긴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산악회

등 정기 - '아마다 블람을 다녀와서'

반복되는 오름짓속에 '나'를 찾는다

생 활글 - 선배가 된다는 것

삶의 주인으로 우리 함께 가자꾸나

개강날 맥주잔에 소수를 가득 부어 마시며, 후배들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심념에 원샷을 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목소리로 "대학이란 말이야"한참을 늘어놓고 오늘도 "잠은 한곳에서 자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야 만다.

선배가 된다는 것. 올해로 3번째 맞는 새내기들의 모습.

한 후배는 '어릴 적 소풍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되살아난다'며 개강을 앞둔 어느날 자신의 들뜬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해를 거듭하고 내가 4학년이 된 지금에도 선배가 된다는 것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대학 들어온 지 하루정도 지난 새내기가 "선배님 대학에 회의를 느껴요. 내가 꿈꾸던 대학의 모습은 오고간데 없고요. 차라리 재수할 때가 더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여자 후배, 다른 후배는 "정말 재밌어요. 선배님들과 어울려 같이 술도 마시고 낯선 동기들과 마치 10년지기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구요. 동아리, 학회 안 들어다닌 곳이 없어요"라며 자신의 대학생활을 늘어놓는다.

이렇듯 자신의 얘기를 하며 선배의 입을 틀어져라 쳐다보는 후배들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대학은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입이 무거워지고 만다.

새내기를 맞으며 보게 되는 것은 두가지 모습이었다.

97학번 새내기가 많이 밝다는 것. '영터스의 정'을 흥얼거리기도 하지만 '바위처럼'. 노래가 나올 때는 잠시도 엉덩이를 가만히 들 줄 모르고 서투른 손짓 발짓으로 선배를 따라하는 모습이었다.

"문예의 황무지라는 우리 과에서 우리들이 부흥을 일으키겠습니다"라며 손까지 올리며 외치는 모습이 무척이나 가슴을 뿌듯하게 한다.

다른 하나의 모습은 선배가 되어 있는 96학번의 모습이었다.

늦은 밤, 분주했던 학교가 적적해질 즘, 술이 반쯤 오른 모습으로 하나 둘 과방으로 찾아들어오는 96학번들.

도란도란 앉아 "선배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난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라며 '대학·학교·학생회·가치관' 등 다양하게 표출하는 새내기의 궁금증을 풀어주기가 힘들었다며 버거웠던 하루 생활을 얘기한다.

새내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동시에 선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리라.

자신의 닮음꼴인 새내기들이 이 다음에 또 자신을 닮은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진 토양에 적절한 햇빛, 비료를 주며 가꾸어 가는 것.

새내기와 함께 자신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줏대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내기가 선배에게 주는 선물이자 다음에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숙제가 이닐까 한다.

김동익
〈법 · 법학 4〉

사진 수필

"안녕하십니까? ○○대 ○○과 97학번 _____입니다."

'새내기' 란 말에서 의욕에 가득찬 설레임을 느낄 수 있듯 그들의 앳된 목소리에서 대학 4년의 힘찬 출발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의 생기발랄함에서 나태해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더욱 부딪히며 치열한 삶을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처음처럼'

김학영 기자

안기부법 · 노동법 날치기 투과 원천무효화를 위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2천기자 시국선언

"김영삼대통령 각하 물러나셔야 합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법을 위한 힘찬 투쟁의 길에 대학신문이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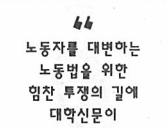
"인권유린 · 고문수사 민주주의 퇴보의 주범 안기부법 개악 무효화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살 치기 안기부법 · 노동법은 원천 무효입니다.

서울대/이지현 이원준 홍수미 이지석 서울대/정일 이형석 고미현 이민희 서울여대/변춘광 김미지 민경연 서동상 김대다/황인호 김민수 손광은 이경희 최민규 김영대/김혁영 김정희 박윤정 서윤경 함동주 반수주 하근명 한대/황기두 곽철영 차은주 유혜정 김선경 이교은 정은주 이재룡 서경원 소상인 김중균 연시영 서용석 윤여보 반수호 배용철 박지연 김수정 서울신대/손주성 안상은 윤영경 김재호 김창민 이정교 김병선 김희대/강상일 김동욱 최수경 김남미 김재은 김정혜 최용성 최현정 김용훈 홍덕대/정상현 김경미 김혜영 정득형 김홍석 안은정 박다현 함교대/이동석 김재성 고주동 주경훈 상명대/김민희 양소희 김현주 김태훈 신윤희 서강대/송상민 조병한 정범석 연철석 김희선 성균관대/최상희 윤선미 이진희 박경아 홍신대/박성식 김길은 양이호 노수진 한희선 이은주 동국대/김기정 김홍한 김미선 최정미 고지은 최선 이태훈 조인혜 서울대/박상준 최연실 황재하 주장훈 서보경 김병기 김혜정 김현탁 박전선 김문섭 송기영 박동민 이학영 윤경아 이상문 김수연 저현아 이선우 중대/윤상호 최수정 김성윤 한규석 인병철 이지혜 경기정 설지연 노지훈 손수인 정화성 조미란 전희식 김호진 권경희 최보람 박상빈 김수동 송동화 단대/임준영 김정호 정윤수 이동근 순진영 정미애 배경택 이지혜 박혜경 이수정 문덕환 최원 마나영 김남대/윤하나 장현숙 이현정 송재은 황윤철 김희정 박수정 김지영 류지영 부산대/이미경 김연숙 김정한 이진영 김명희 이선경 이은경 권경희 손향미 이경미 정재라 김윤경 박승주 윤지형 심재훈 차혜진 해양대/서동희 최현석 김수영 원이대/김보경 문동훈 박경진 이상은 백영선 원이대/경영훈 김현정 이경아 김혜진 문부월 정미경 김재영 박소연 배미수 부산교대/김수경 장옥선 인혜경 윤정임 손미정 인재대/김보경 정윤주 장동주 정인철 최하영 정재수 김형수 김윤희 김현선 인현령 김상준 최상석 김남권 김명희 부경대/김한식 이재용 이준석 조정현 서기수 윤소영 이민선 김은심 정현진 김형규 임강산임대/선호석 인영민 홍성혜 윤은경 송병훈 홍성혜 김남대/김도훈 김상희 최하영 김보경 김경소 정혜연 박선화 홍경진 김수은 한림대/이이가 이미경 송경희 권미림 유정희 이은경 김승혜 윤현교대/이선재 나현주 김지연 노일 이보영 박혜은 백선정 정보화 양윤선 김동희 김종대/ 김진경 손수영 이현희 김미정 한국외대/임상환 한동구 안상교 박희영 김형보 이경민 김지현 주연 최선아 김종대/김정숙 류정 김선미 김재일 삼육신대/김지선 정동우 조한은 한남대/ 유지영 이지은 신영희 박미정 김지영 김미선 공주교대/민은정 신인재 정혜 김혜 이미희 김미선 전선희 김재희 박현선 충남대/최재희 최영미 최혜정 김정미 김선진 박지현 이주연 상주대 대전대/김은희 박수미 김기홍 대전대/박수근 김상수 서울대/고손수 유혜정 김상희 이신자 고려대/김소희 김은정 임소영 장미영 이민희 최지혜 강재헌 건대/이구 충주신대/홍지화 이영숙 신현주 청주대/유혜진 한상현 신정아 서혜진 박동실 조미수 충북대/심동주 유선호 이민숙 임정은 홍수정 김소영 조미정 윤혜숙 김정희 이신자 고려대/김지수 김은희 김은정 임소영 장미영 이민희 최지혜 강재헌 건대/이구 충주신대/홍지화 이영숙 신현주 청주대/유혜진 한상현 신정아 서혜진 박동실 조미수 충북대/심동주 유선호 이민숙 임정은 홍수정 김소영 조미정 윤혜숙 김정희 이신자 부산외대/신금미 유혜정 김지숙 김민화 김미애 정은혜 박선미 원산대/박수남 정현민 전희수 송진혜 장미애 이지혜 박혜경 이수정 문덕환 최원 마나영 김남대/윤하나 장현숙 이현정 송재은 황윤철 김희정 박수정 김지영 류지영 부산대/이미경 김연숙 김정한 이진영 김명희 이선경 이은경 권경희 손향미 이경미 정재라 김윤경 박승주 윤지형 심재훈 차혜진 해양대/서동희 최현석 김수영 원이대/김보경 문동훈 박경진 이상은 백영선 원이대/경영훈 김현정 이경아 김혜진 문부월 정미경 김재영 박소연 배미수 부산교대/김수경 장옥선 인혜경 윤정임 손미정 인재대/김보경 정윤주 장동주 정인철 최하영 정재수 김형수 김윤희 김현선 인현령 김상준 최상석 김남권 김명희 부경대/김한식 이재용 이준석 조정현 서기수 윤소영 이민선 김은심 정현진 김형규 임강산임대/선호석 인영민 홍성혜 윤은경 송병훈 홍성혜 김남대/

인 생파탄 · 부정비리 주범 신한국당을 반대합니다.

생명이 장미성 박주순 손주성 장지성 김지찬 전재원 남명선 송오석 김남대 /박정현 박보성 남철재 전 권 이정성 주운희 박재성 김정일 황진형 하혜인 정혜연 해양대학교/배춘근 고경임 김선영 전주신대/김동규 문미선 정원대/이수민 이은광 윤근희 김진희 김은비 박형주 백주석 공주교대/서혜성 김선영 김동주 여수수대/김병규 김인호 서덕희 신현호 전남대/ 박장민 강수자 김재일 김동주 김인경 전경수 김경혜 이민영 정호성 박동준 공주대/김유호 서재주 고재명 목포대대/ 서덕원, 모성호 송희정 선동성 전일 순천대/ 이호형 김정현 노계환 조은형 제주대/ 임상미 김혜랑 김주연 고은미 서주현 호남대/ 박은주 김기홍 김동주 박선주 서미은 인정순 임미빈 호남신학대/ 강선영 오후수 이혜련 최사웅 조선대/ 최선숙 하선영 백선미 백수민 임은경 정은수 박인주 하성자 김기홍 대전대/박수근 김상수 서울대/고손수 유혜정 김상희 이신자 고려대/김소희 김은정 임소영 장미영 이민희 최지혜 강재헌 건대/이구 충주신대/홍지화 이영숙 신현주 청주대/유혜진 한상현 신정아 서혜진 박동실 조미수 충북대/심동주 유선호 이민숙 임정은 홍수정 김소영 조미정 윤혜숙 김정희 이신자 부산외대/신금미 유혜정 김지숙 김민화 김미애 정은혜 박선미 원산대/박수남 정현민 전희수 송진혜 장미애 이지혜 박혜경 이수정 문덕환 최원 마나영 김남대/윤하나 장현숙 이현정 송재은 황윤철 김희정 박수정 김지영 류지영 부산대/이미경 김연숙 김정한 이진영 김명희 이선경 이은경 권경희 손향미 이경미 정재라 김윤경 박승주 윤지형 심재훈 차혜진 해양대/서동희 최현석 김수영 원이대/김보경 문동훈 박경진 이상은 백영선 원이대/경영훈 김현정 이경아 김혜진 문부월 정미경 김재영 박소연 배미수 부산교대/김수경 장옥선 인혜경 윤정임 손미정 인재대/김보경 정윤주 장동주 정인철 최하영 정재수 김형수 김윤희 김현선 인현령 김상준 최상석 김남권 김명희 부경대/김한식 이재용 이준석 조정현 서기수 윤소영 이민선 김은심 정현진 김형규 임강산임대/선호석 인영민 홍성혜 윤은경 송병훈 홍성혜 김남대/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법을 위한 힘찬 투쟁의 길에 대학신문이 함께 합니다"

내 학신문 기자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인권유린 · 고문수사 민주주의 퇴보의 주범 안기부법 개악 무효화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상 97개 대학 662명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 국 대 학 신 문 기 자 연 합